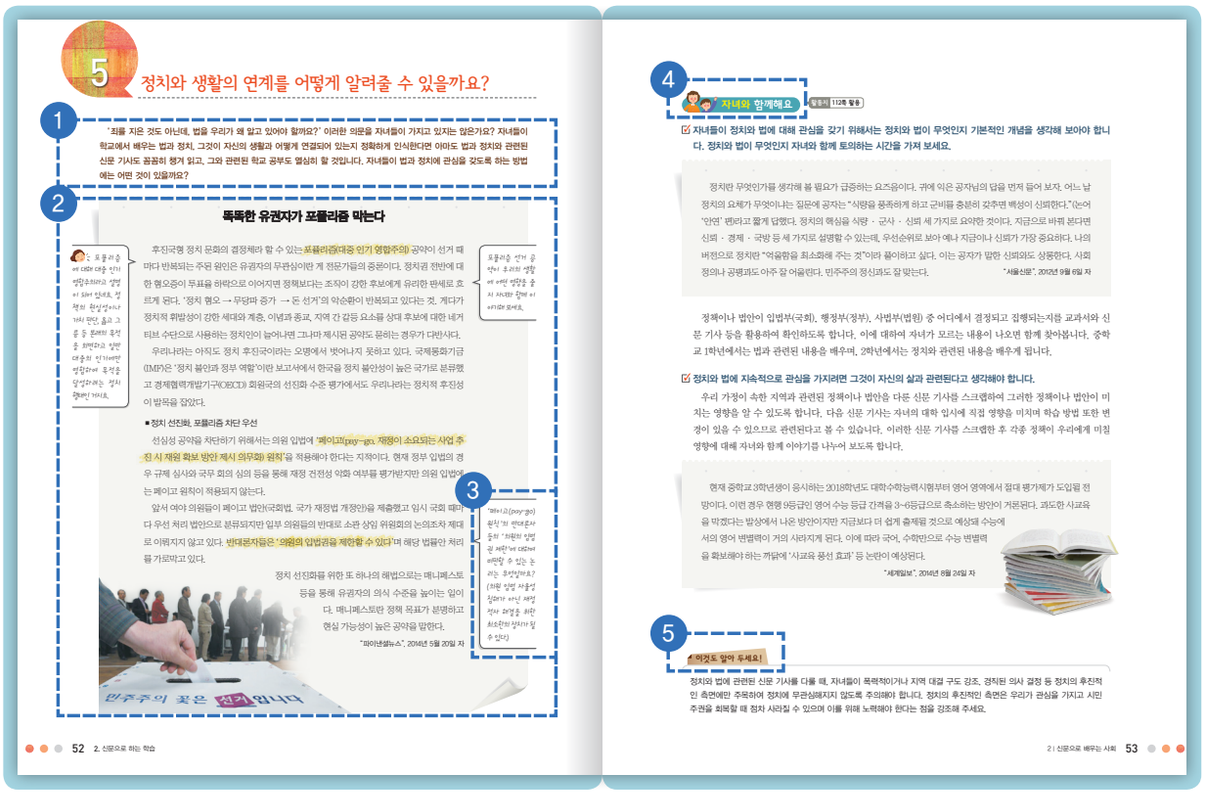
중등 학부모를 위한

신문과 생활

ㅈㅜㅇㅈㅜㅇ.indb 1 14. 11. 24. 오후 2:13

구성과 특징



5 정치와 생활의 연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법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정치, 그것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이마도 법과 정치와 관련된 신문 기사도 꼼꼼히 챙겨 읽고, 그와 관련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독특한 유권자가 포퓰리즘 막는다

후진국형 정치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공약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유권자의 무관심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증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면 정책보다는 조직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로 흐르게 된다. '정치 혐오 → 무당파 증가 → 돈 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세대와 계층, 이념과 종교,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이 늘어나면 그나마 제시된 공약도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치 불안과 정부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치 불안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선진화 수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후진성이 발목을 잡았다.

■ 정치 선진화, 포퓰리즘 차단 우선

선심성 공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에 '페이고(pay-go)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 심사와 국무 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 여부를 평가받지만 의원 입법에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야야 의원들이 페이고 법안(국회법,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임시 국회 때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 위원회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매니페스토 등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매니페스토란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말한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20일 자

3 "페이고(pay-go) 원칙"의 반대론자들의 "처방의 선별적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주제입니다. (처방 선별 적용의 정확한 의미 해석 및 정부의 재정을 최대 효율적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1 1단계 활용

☑ 자녀들이 정치와 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와 법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와 법이 무엇인지 자녀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급증하는 요즈음이다. 귀에 익은 공자님의 답을 먼저 들어 보자. 어느 날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갖추면 백성이 신뢰한다."(논어 '안연' 편)라고 짧게 답했다. 정치의 핵심을 식량 · 군사 · 신뢰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지금으로 바꿔 본다면 신뢰 · 경제 · 국방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버전으로 정치란 "어울함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라 풀이하고 싶다. 이는 공자가 말한 신뢰와도 상통한다. 사회 정의나 공평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민주주의 정신과도 잘 맞는다.

"서울신문", 2012년 9월 6일 자

정책이나 법안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중 어디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교과서와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녀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함께 찾아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며, 2학년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 정치와 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그것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속한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신문 기사는 자녀의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학습 방법 또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후 각종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 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경우 현행 9등급인 영어 수능 등급 간격을 3~6등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지금보다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수능에서의 영어 변별력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만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사교육 풍선 효과'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2014년 8월 24일 자

5 이것도 알아 두세요!

정치와 법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다룰 때, 자녀들이 폭력적이거나 지역 대결 구도 강조, 경직된 의사 결정 등 정치의 후진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여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의 후진적인 측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주권을 회복할 때 점차 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52 2. 신문으로 하는 학습

2 | 신문으로 배우는 사회 53

❶ 소단원 도입 — 소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❷ 신문 기사 — 소단원에 적합한 신문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신문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❸ 도움말 — 신문을 읽으면서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 신문을 읽는 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❹ 자녀와 함께해요 — 학부모가 직접 자녀와 함께 신문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론을 제시하였고, 신문을 활용한 교육 방법, 지도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가정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❺ 이것도 알아 두세요! —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 덧붙여 알아 두면 좋은 지식, 추가 정보 등의 내용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ㅈㅜㅇㅎㅜ.indb 2 14. 11. 24. 오후 2:14

차례

1 신문과 신문 활용 교육

1 신문의 이해 6

2 신문 활용 교육의 이해 16

2 신문으로 하는 학습

1 신문으로 배우는 국어 28

2 신문으로 배우는 사회 42

3 신문으로 배우는 과학 58

4 신문으로 배우는 수학 68

5 신문으로 가꾸는 인성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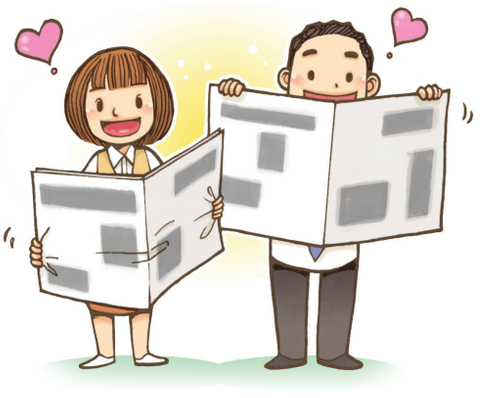
6 신문으로 찾아가는 진로 86

3 신문 제작 프로젝트

1 신문 제작 / 준비 편 96

2 신문 제작 / 실행 편 102

부록 |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지 110



ㅈㅜㅇㅈㅜㅇ.indb 3 14. 11. 24. 오후 2:14

1

신문과
신문 활용 교육

1 신문의 이해

2 신문 활용 교육의 이해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신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문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지니는 다양한 기능과 역사, 특징 등을 알아봅니다. 또한 신문 활용 교육(NIE)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xTOxTO.indb 5 14. 11. 24. 오후 2:14

1

신문의 이해

1. 신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신문이 하는 일이 뭐예요?
3. 신문은 언제부터 본 거예요?
4. 신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신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1 신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매체로 주변을 둘러보면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가 신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알아볼까요?

첫째, 신문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라고 합니다.

▪ **간행물**_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둘째, 신문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문(新聞)은 한자어로 '새로운 소식(新)을 듣는다(聞).'이고, 뉴스 페이퍼(Newspaper)는 영어로 '새로운 소식(news)을 종이(paper)에 옮겨 전한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신문을 "매일 발생하는 뉴스와 정보들을 문자와 그림, 사진 등으로 가공, 편집해서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인쇄물로 그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대가를 받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지는 전달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종이 신문

▲ 모바일 신문

인터넷 신문 ▶

ㅈㅜㅇㅈㅜ.indb 7 14. 11. 24. 오후 2:14

2 신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문의 기능에는 '정보 제공 기능, 여론 형성 기능, 오락 기능, 광고 기능'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제공 기능

정보 제공 기능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국제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이번에는 '기부 천사'로 나섰다. 두 위인이 지난 2년간 불우 이웃 돕기에 쾌척한 금액은 488만 원. 위인들의 '위민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 뚱딴지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참말이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다. 문화정보센터는 '공공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경우 사용료를 받는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촬영, 광고 제작, 판매 목적의 사진 촬영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는 171만 7140원을 모았다. 사용료를 처음 받기 시작한 2012년에는 316만 5000원을 징수했다. 2년간 저작 재산권 사용료로 약 488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18일 자

여론 형성 기능

여론 형성 기능은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나 ▪사안에 대한 입장, 견해, 태도를 사설이나 칼럼, 논평 등을 통해 ▪표명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그대로 소식을 전하는 정보 제공 기능과는 달리 신문사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관점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타 언론사나 국민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안(事案)**_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 **표명(表明)**_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탄소 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 시행이 예고됐던 사안이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특히 재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런데 재계가 또다시 기업 부담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시행을 요구하고, 정부가 재검토설을 흘리는 것은 정부가 혼란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탄소 거래제는 중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조건 늦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국제신문", 2014년 7월 31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8 14. 11. 24. 오후 2:14

오락 기능

신문의 기능이 정보 제공이나 여론 형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가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는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기 위한 스포츠, 연예, 만화, 레저 등의 가벼운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기능이 있습니다.

■ 스포츠스태킹은?

컵 12개 빨리 쌓고 내리는 것을 겨루는 경기

특별히 제작된 컵(스피드스택스) 12개를 누가 더 빨리 쌓고 내리는지를 겨루는 경기. 3-3-3-3-6-3-사이클 등 3개 종목이 있다. 종목별로 3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가장 좋은 성적이 최종 기록으로 인정된다. 3-6-3 종목의 경우, 왼쪽-가운데-오른쪽에 각각의 숫자만큼 컵을 쌓고 허문다. 컵을 쌓는 활동은 '스태

"영화도 대첩…아바타를 이겼사옵니다"

역대 흥행 1위 '명량' 19일 만에 1400만 돌파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흥행순위 1위에 올랐다. 또 개봉 19일 만에 관객 14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누적관객이 1422만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명량'은 '아바타'(1362만 4208명)가 갖고 있던 역대 흥행 1위 타이틀을 3년 만에 되찾으며 한국 영화 흥행사를 새로 썼다.

◈각종 신기록 행진=＇명량'은 관복점연 15일 '괴물'(1301만9746명)이 보유한 한국 영화 흥행기록을 8년 만에 경신했다. 역대 최단 기간 200만(2일) 300만(4일) 400만(6일) 500만(6일) 600만(7일) 700만(8일) 800만(10일) 900만(11일) 1000만(12일) 등과 등 신기록을 쓴아냈다.

남성(42%)보다 여성관객(58%) 많아
1000만 돌파 12편 중 한국영화가 10편
애국심 마케팅·스크린 독과점도 한 몫

역대 1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눈 개봉연도, 괄호 안은 기준 신속일

중장년층 관객들이 대거 영화관을 왔었고, 전쟁 영화라는 편견을 깨고 남성(41.9%)보다 여성(57.8%) 관객이 더 많았다. 영화를 한 번 이상 보는 재관람율도 3.7%나 됐다.

이순신 관련 컨텐츠는 강력 등 인접 분야로 확산됐다. '칼의 노래' '그래나 이순신이 있었다' '난중일기' '이순신의 리더십' 등 관련 세적이 설티나게 팔리고, 이순신 장군의 투옵타임 재현한 장난감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명량' 인문학 강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정치권에서도 관람 열기가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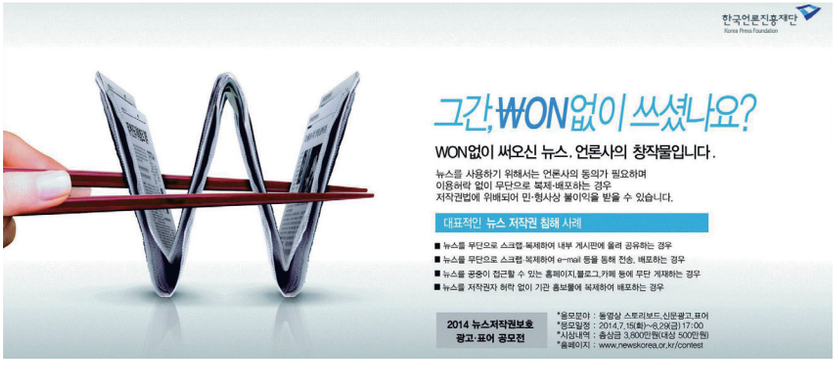
◈한국 영화 할리우드 압도=＇명량'의 가세로 역대 1000만 돌파 영화는 모두 12편이 됐다. 이 가운데 '아바타'와 '겨울왕국'을 제외하고 10편이 한국 영화다. '괴물'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 '변호인' '실미도'가 1000만 관객 대열에 올랐다. 2003년 '실미도'가 처음 1000만 고지를 점령한 후 클릭할 만큼 성장을 보였다.

'명량'의 기세에 힘입어 관객 점유율도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눌렀다.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은 50.6%로 44.6%의 미국 영화를 따돌렸다.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를 제친 것은 1분기(1~3월)이후 5개월 만이다. 1~7월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전체 관객의 7.1, 3%를 점어 답으며 21.9%에 그친 한국 영화를 압도했었다.

◈흥행 현상과 스크린 독과점=＇아바타'는 3D 신기술로 극장가를 장악하고, '괴물'은 배우들의 인기력, 사회적 메시지, 드라마의 힘이 필요하게 여우년저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다. 년면 '명량'은 영화의 완성도보다는 성웅 이순신에

광고 기능

광고 기능은 광고주에게 신문의 일정 지면을 제공하여 독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상품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독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을 알리는 공익 광고도 소개됩니다.



ㅈㅜㅇㅈㅜ.indb 9 14. 11. 24. 오후 2:14

3 신문은 언제부터 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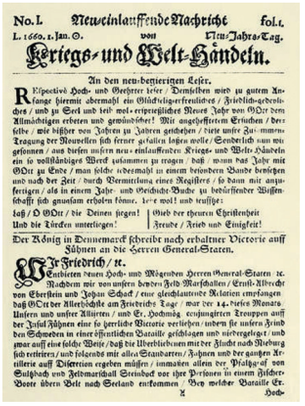
신문이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7세기 초입니다. 최초의 근대 신문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관보의 성격을 띤 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신문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문의 역사

세계 최초의 신문은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정보와 소식을 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종이가 아니라 커다란 석고판에 써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의 중심가를 비롯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은 17세기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발행된 신문인 '라이프치거 짜이퉁(LeipzigerZeitung)'이었고, 그 이후에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근대적인 신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1703년 오스트리아에서 창간한 '비너 짜이퉁(Weiner Zeitung)'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 **짜이퉁(Zeitung)**_ 예전에는 알림, 전갈, 소식, 또는 신기한 얘기들을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신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No. I Neuenlauffende Nachricht fol. 1.
L. 1650. 1. Jan. O. von Neu-Jahr-Tag.
Kriegs- und Welt-Händeln.
An den neu-begierigen Leser.
Der König in Dennemarck schreibt nach erhaltner Victorie auff Fühnen an die Herren General-Staten.
Wir Friederich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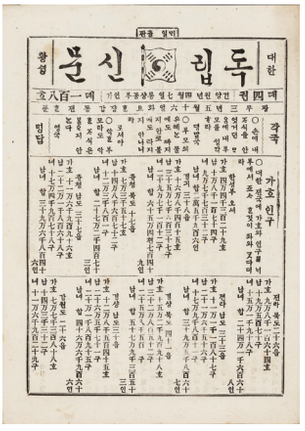
▲ 라이프치거 짜이퉁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에 창간한 '한성순보'로, 정부 기관(박문국)에서 10일에 한 번씩 발행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 정부의 각종 결정 사항, 관리의 임면 사항 등을 게재하여 관보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한문으로 발행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리와 양반 계층이 독자였습니다.

조보(朝報)
근대 이전에는 신문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조보'라는 나라의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사설과 논평 위주로 당시의 나라 사정과 자주적인 독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순 한글 신문으로 영자판과 함께 발간하여 처음에는 격일간으로 펴내던 것을 1898년 7월부터 매일 발간하다가 1899년에 폐간되었습니다.


독립신문
대한 독립 신문

▲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신문은 1898년도에 창간한 '매일신문'으로 독립과 민권 사상을 고취하는 등 민중 계몽에 앞장섰지만 독립 협회 사건으로 폐간되었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10 14. 11. 24. 오후 2:14

4 신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문의 종류에는 발행 시기에 따라 조간 신문과 석간 신문으로 구분되고, 보도 내용에 따라 종합 신문과 전문 신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배포 지역에 따라 국제 신문, 전국 신문, 지역 신문으로 구분되고, 구독료의 지불 유무에 따라 유료 신문과 무료 신문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종류

1 조간 신문, 석간 신문

조간 신문은 밤에 신문이 인쇄되어 아침에 각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이고, 석간 신문은 오후에 인쇄되어 그 날 저녁에 각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입니다.

2 종합 신문, 전문 신문

종합 신문은 많은 분야와 넓은 지역을 보도하는 신문이고, 전문 신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특수 분야의 소식만을 선별하여 정보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신문입니다.

3 국제 신문, 전국 신문, 지역 신문

국제 신문은 국제 관련 기사만 모아서 다시 인쇄하여 배포하는 신문이고, 전국 신문은 대부분의 주요 일간 신문이 해당하며, 지역 신문은 독자가 사는 지역의 소식이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신문입니다.

4 유료 신문, 무료 신문

신문을 볼 때 구독료를 지불하는 신문을 유료 신문(유가지)이라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구독하는 신문을 무료 신문(무가지)이라고 합니다. 공공 단체나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학 신문, 생활 정보 신문 등이 무료 신문에 해당합니다.

5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종이에 잉크로 인쇄하여 독자들에게 배달하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으로만 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독립형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털 뉴스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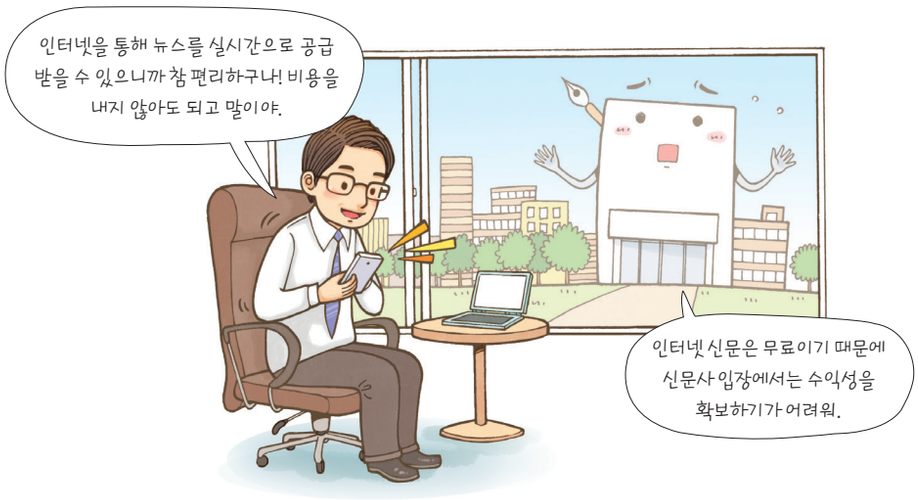
▪ **포털**_ 입구가 되는 사이트라는 뜻. 수많은 사이트를 특정한 분류에 따라 정리해 놓고 주소를 링크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이르는 말.

ㅈㅜㅇㅈㅜㅇ.indb 11 14. 11. 24. 오후 2:14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은 한번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도서, 영화,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즈음은 신문사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각도로 활용합니다. 한 가지의 기사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 폰의 영향으로 신문사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신문사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_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카카오톡, 라인,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음.



진화하는 신문

신문사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섹션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건강, 경제, 교육, 여행 등 주제별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섹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일환**_ 줄지어 있는 많은 고리 가운데 하나.

▲ 건강 섹션

▲ 경제 섹션

▲ 교육 섹션

ㅈㅜㅇㅈㅜㅇ.indb 12 14. 11. 24. 오후 2:14

5 신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이 신문의 1면은 그 날의 핵심 기사를 싣기 때문에 신문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신문사마다 다른 관점으로 기사를 싣는 경우도 있으니 독자의 판단이 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1면에서 5면까지를 신문의 뉴스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면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오피니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1면을 살펴보면서 신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호수 당일까지 발행된 신문의 횟수

제호 신문의 이름

제호 옆 돌출 광고 신문 제호 옆의 광고

판수 인쇄 시기. 하루에 인쇄되는 횟수

발행일 신문이 발행된 날짜

표제 기사의 큰 제목

부제 기사의 작은 제목

사진과 사진 설명 시각적 이미지로 뉴스를 전달하고 짧은 글로 사진을 설명

기사 본문 전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

광고 광고주가 신문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

ㅈㅜㅇㅈㅜ.indb 13 14. 11. 24. 오후 2:14

6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은 크게 취재, 편집, 인쇄, 발송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수고, 땀방울이 숨어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신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취재

사건과 사고 등이 일어나면 기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취재를 합니다. 취재는 시민 등의 기사 제보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신 자료 등을 통해서도 취재를 합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들은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신문사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기사가 취합되면 편집국장과 각 부서의 부장이 모인 데스크 편집 회의에서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각각의 지면에 어떤 기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 현장 취재

▲ 데스크 편집 회의

편집

기사의 배치가 정해지면 각 부서의 부장이 기사의 사실 여부와 문장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편집부로 기사를 보냅니다. 동시에 기사에 필요한 각종 도표나 그래픽 삽화를 미술팀에 의뢰하고,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모든 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편집실로 보내지고, 기사 파일을 조판하고, 자료들을 배열하면서 신문의 구성에 맞추어 편집합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교열부에서 잘못된 문장이나 틀린 글자들을 수정합니다.

▪ **교열**_ 문서나 원고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며 검열함.

▲ 부서별 기사 작성

▲ 삽화, 사진 등 의뢰

▲ 편집 및 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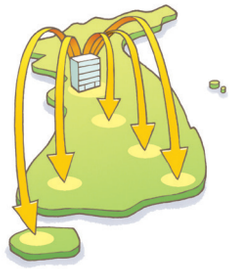
▲ 교정 교열

ㅈㅜㅇㅈㅜㅇ.indb 14 14. 11. 24. 오후 2:14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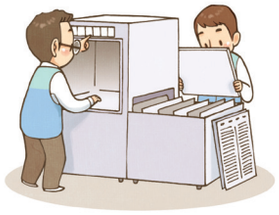
편집부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조판을 마친 지면은 신문과 똑같은 크기의 필름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요즈음은 전국에서 동시에 신문을 인쇄하는 시대여서 완성된 지면을 초고속 전송망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인쇄 공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인쇄 공장으로 보내진 자료는 필름으로 출력하여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필름을 인쇄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쇄판을 윤전기에 걸고 인쇄를 시작하면 시간당 10만 부 이상의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 **조판**_ 원고상의 지정이나 조판 규칙 등에 따라 판틀을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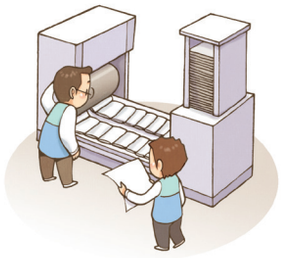


▲ 지면 전송

▲ 필름 출력



▲ 인쇄판 제작



▲ 인쇄

발송

윤전기에서 인쇄된 신문은 입력된 바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포장되고, 포장된 신문은 각 ▪지국별로 정해진 부수에 맞추어 트럭에 실려 전국에 있는 신문사 지국으로 운송됩니다. 이렇게 운송된 신문은 배달원들에 의해 우리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 **지국**_ 본사나 본국에서 갈라져 나가 그 관할 아래 있으면서 사무를 맡아보는 곳.

▲ 자동 포장

▲ 지국으로 운송

▲ 가정으로 배달

신문이 우리에게 배달된 순간 모든 과정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여 신문에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신문이 제작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 신문 구독

▲ 독자 의견과 평가 수렴

▲ 신문에 반영

ㅈㅜㅇㅈㅜㅇ.indb 15 14. 11. 24. 오후 2:14

2

신문 활용 교육의 이해

1. NIE는 무엇인가요?
2. NIE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3. NIE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4. NIE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1 NIE는 무엇인가요?

NIE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요? 학교에서는 NIE를 활용한 수업, 방과 후 교실에서는 NIE 논술 교실, 신문사에서는 NIE를 위한 지면 발행, 각종 교육 기관에서는 NIE 지도자 과정 등을 개설하여 여러 곳에서 NIE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NIE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NIE 명칭

'NIE'라는 명칭은 캐나다 일간신문발행인협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NIE의 정의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로 '엔 · 아이 · 이'라고 읽습니다.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문 활용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NIE의 목적은 신문과 친해지고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키워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교양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신문은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교과서에는 제때에 가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매일 새로운 정보가 실리므로 교과서를 보완하여 신문을 활용하면 유익하고 실용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NIE: 신문을 가르치고, 신문으로 가르치는 교육〉

NIE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① NIE의 탄생

NIE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32년 뉴욕 타임스 신문사에서 학교 교과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뉴욕 시내의 각급 학교에 뉴욕 타임스 신문을 공급한 것이 최초의 신문 활용 교육(NIE) 사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는 사회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신문을 활용한 교사 연수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17 14. 11. 24. 오후 2:14

② 우리나라의 NIE

우리나라에 NIE란 용어를 처음 알린 기관은 '한국신문협회'입니다. NIE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985년 9월 15일 신문 협회보에 설문 조사 결과와 각국의 NIE 사례를 실어 소개하면서 NIE를 알렸습니다.

NIE 도입 건의

1994년 5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육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학교 교육에 NIE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NIE를 처음 소개한 신문은 "조선일보"로 '수업에 신문을'이란 제목의 칼럼(1990년 6월 28일 자 이규태 코너)에 NIE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NIE 지면을 처음 발행한 신문은 "중앙일보"로 1995년 3월 NIE 코너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만화나 광고 등의 신문 지면을 활용한 NIE 방법 및 외국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NIE, 신문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우리나라의 신문사들은 NIE를 위한 지면을 따로 구성하거나 별도로 발행하여 독자들이 신문을 NIE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NIE 활동에 대하여 알려 주고, NIE의 지도법을 소개하며, 각종 자료 등을 수록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江原日報

2014년 02월 04일 화요일 010면 문화

"눈길끄는 기사 찾아서 일기 소재로 활용"

생각을 키우는 NIE 신문일기 쓰는 방법

일기는 날마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등을 사실대로 적은 기록이다.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글쓰기 능력이나 논리적인 사고력이 커지는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기를 쓰다 보면 소재 찾기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일기의 소재를 신문에서 찾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문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글쓰기 능력은 기본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신문일기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1)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제목 수정-기사 정확히 파악

핵심 요약-본문 4분의 1 분량

생각 쓰기-논술력 향상 효과

우선 일기의 소재를 신문에서 찾아보자.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일상과 관련한 내용도 괜찮고,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도 좋다. 신문일기를 꾸준히 쓰다보면 글쓰기 능력은 기본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도 눈에 띄게 향상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읽고 신청을 기울여 볼 것이다. 따라서 신

◇회천교육도서관 주최 NIE교실

서부이고 있다.

大田日報

2013년 10월 01일 화요일 B07면 특집

다양한 물건 사고 팔며 경제 개념 키워요

신나고 재미있는 NIE 스쿨

-⑩ 신문 활용 시장놀이

활동 따라해보기

◇만나요="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가게 놀이를 했는데 내 물건이 인기 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NIE 무엇으로 물건을 광고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이가 손 물건들을 꺼내놓으며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날 가게 놀이를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가격표를 만들며 하루 종일 설레 있다니 새

더불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듣게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재래시장을 벗지게 광고해 보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광고를 본 후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제안했다. 아이는 광과 그림 그리고 숫자를 조합하여 훌륭한 광고지를 제작하였다.

◇아무리해요=시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역할을 정하여 시장놀이를 해 보았다. 물건을 팔아 보기도 하고 이곳저곳 광고하러 살펴본 후 물건을 고르는 과정을 경험시 또 한 단계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엄마를 위한 TIP

NIE 활동 계획안(23차시)

활동영역	신문과 함께하는 교과서(활동)
주제	가게와 가상 대상연령 초등1학년
활동목표	신문 속에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광고를 만들고 시장 놀이를 한다.
활동자료	일간지 신문, 가위, 풀, 스케치북이나 전지, 색연필, 연필
활동방법	▶만나요 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게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해요용 ②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물건을 신문에서 찾아오며 볼 수 있어요. ③ 광고를 만들어 시장을 홍보해 보세요. ▶아무리해요 ④ 시장 놀이를 통해 물건을 살 때와 팔 때의 달 점 어떻게 하이 점

宋北日報

2014년 08월 12일 화요일 007면 사회

현장속으로 ●전북일보 주최 초·중 NIE캠프

11일 국립검재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이용해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보고 있다.

"세상 보는 눈 커졌어요"

신문 기사·사진 오려 자기소개서 만들고
칼럼 작성·읽기 통해 진로 가늠해보기도

11일 오전 국립검재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세미나실. 40여명의 초등생들이 제법 남럽한 손놀림으로 신문 제목을 오린다. '놀자! 신문으로'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나 사진을 이용해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있는 것. 책상마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다양한 신문들이 올려져 있었고,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하며 신문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시나브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졌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탓에 신문이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초등생들은 잡지만한 사진을 오리거나 가장 큰 제목을 오려 소개서를 완성했다. 그러면서도 일부는 기사와 제목을 함치게 짜깁기해 제법 그럴듯한 소개서를 선보였다.

전북일보사가 11일 여럽방학을 맞아 생명체험센터에서 계속되는 이번 캠프는 전라북도 NIE 교육연구원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재단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다.

교육은 오후들어서도 계속됐다. 최효성 교사의 '신문에 대한 이해' 와 김주연 교사의 '신문으로 세상보기' 등을 통해 초등생들은 서서히 신문읽기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장시 종린 눈을 비빈면서도 전북일보 기자들이 작성한 신문기사들을 요약하고 느낀 점 등을 적어내려 갔다.

열명에서 전행중인 중학생 대상의 캠프는 초등생들과는 다르게 사뭇 진지하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칼럼을 직접 써보고, 신문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신문읽기라는 간접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가늠하기도 했다.

종합선물세트나 다름 없다. 초·중생들이 신문과 친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오전만 해도 신문을 낯설게 여기던 참가자들은 오후 들어서면서 신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전북일보사와 전라북도 NIE 교육연구원가 마련해는 NIE캠프는 전국적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입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참가신청이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접수를 받은지 이틀만에 마감이 되면서 '신청자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김마초 강선우양(6년)은 "친구의 소개로 캠프에 참가했다"면서 "신문을 읽는 재미가 꽁꽁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은주중 3학년인 박지은·박수민양은 "얻을 게 많은 캠프"라면서 "앞으로 신문읽기에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NIE 교육연구회 방극남 회장은 "참가자들이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

ㅈㅜㅇㅈㅜ.indb 18 14. 11. 24. 오후 2:14

NIE,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매해 NIE 거점학교(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음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3년에 전국의 NIE 거점학교 학생 약 1,900명을 대상으로 NIE 효과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NIE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했을 때 '언어 능력', '인성 함양도', '진로 성숙도', '시사·사회에 대한 관심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언어 능력 |

NIE를 통해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위: 점〉

내용	NIE 시행 전	NIE 시행 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다.	64.34	67.96
글을 쓰는 것이 쉽다.	55.67	60.79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쉽다.	63.79	66.63
전체 평균	**61.27**	**65.13**

| 인성 함양도 |

NIE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고, 바른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위: 점〉

내용	NIE 시행 전	NIE 시행 후
친구 관계가 원만하다.	75.48	76.27
가족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73.77	75.45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71.82	73.36
전체 평균	**73.69**	**75.02**

| 진로 성숙도 |

NIE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구, 진로 탐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위: 점〉

내용	NIE 시행 전	NIE 시행 후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62.62	65.6
장래 희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63.52	66.5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69.93	72.1
전체 평균	**65.36**	**68.06**

| 시사·사회에 대한 관심도 |

NIE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위: 점〉

내용	NIE 시행 전	NIE 시행 후
세상일에 관심이 많다.	66.06	68.28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많다.	66.46	68.68
다른 사람들과 세상일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60.64	64.93
전체 평균	**64.39**	**67.30**

※출처: 2013 NIE 거점학교 교육 효과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ㅈㅜㅇㅈㅜㅇ.indb 19 14. 11. 24. 오후 2:14

2 NIE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이전에는 NIE가 신문지를 활용한 학습으로 인식되어, 신문에서 그림이나 글자를 찾아 오려 붙이기, 신문지를 이용한 미술 활동하기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NIE는 신문에 담긴 내용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실생활과 교과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NIE는 기존의 신문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신문을 제작해 보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NIE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신문의 이해

신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신문 매체를 경험하고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NIE를 통해 신문이란 무엇이고, 신문의 역사는 어떠한지, 사람들이 왜 신문을 읽는지에 대한 이유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문의 종류와 신문의 제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② 신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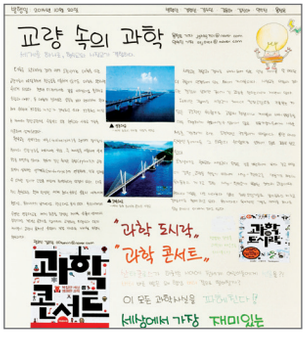
신문 텍스트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만화, 도표 등도 해당합니다. NIE를 통해 신문에 담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논리적 ·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③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하기

신문 텍스트는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NIE는 신문에서 각 교과와 관련된 살아 있는 지식과 정보 탐색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교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신문 만들기

신문 만들기는 다양한 표현 활동을 제공합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신문에 실을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 작성 외에도 광고나 만화 등을 제작하고, 신문을 꾸미고 편집해 봄으로써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신문이 단지 수용의 대상만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20 14. 11. 24. 오후 2:14

자유학기제와 NIE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도록 수업을 토의·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NIE는 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판단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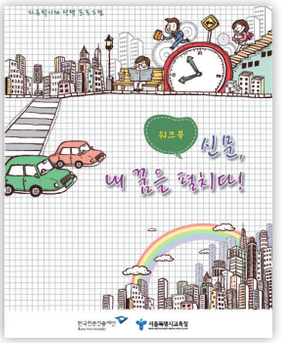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에 NIE를 활용한다면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IE 교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신문, 내 꿈을 펼치다!"와 "중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2종의 NIE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① "신문, 내 꿈을 펼치다!"

"신문, 내 꿈을 펼치다!"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자유학기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신문 만들기와 같은 참여 활동, 영상을 활용한 매체 이해 활동, 토의·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문, 나를 만나다!, 신문, 그 삶 속으로 들어가다!, 신문, 우리의 손으로 탄생하다!, 신문, 나의 꿈과 끼를 키우다!, 신문, 세상에 응답하다!' 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신문, 내 꿈을 펼치다!

② "중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중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은 학생들이 NIE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NIE 관련 활동들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신문과 친해지기, 신문 읽기의 즐거움, 신문과 함께하는 공부,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 제작의 이해, 신문으로 표현하는 세상, 신문과 광고, 신문 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 사회 만들기'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고등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교재도 있습니다.

▲ 중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이 두 교재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80여 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포털 포미(www.form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21 14. 11. 24. 오후 2:14

3 NIE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NIE는 국어, 사회, 수학, 도덕, 미술 등과 같은 교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창의성과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고, 민주 시민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별 NIE 활용 방법의 예

국어
- 신문 기사의 줄거리와 중심 생각 찾기
- 글감을 찾아 주장하는 글쓰기

수학
- 각종 도표 및 통계 그래프 이해하기
- 신문 기사를 읽고 수학 일기 쓰기

사회
- 금융 기관의 종류와 역할 조사하기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 탐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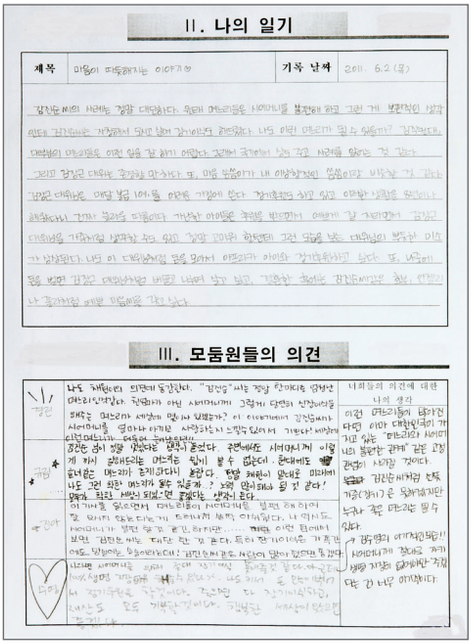
과학
- 신문을 이용하여 과학 용어 사전 만들기
- 신문 속 다양한 과학 기술 찾아보기

미술
- 신문 기사를 포스터나 만화로 표현하기
- 신문에 나온 전시회를 조사하고 관람하기

체육
- 스포츠 용어 사전 만들기
- 다양한 운동 경기 규칙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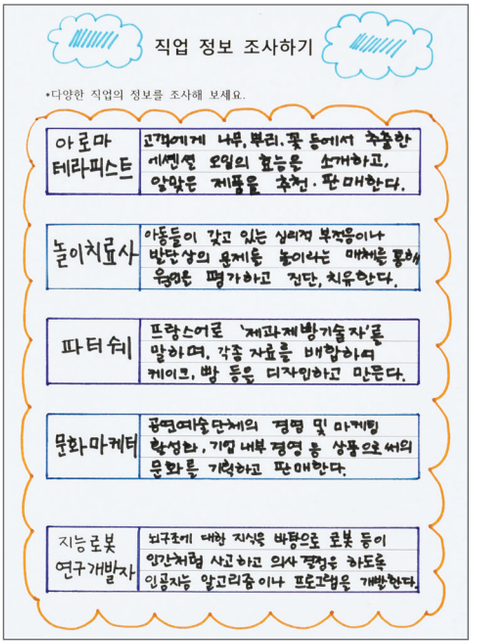
도덕
- 선행, 효도 기사 찾아 자신의 생각 말하기
- 오늘의 선행 인물 정하기

기술·가정
- 건강 생활 수칙을 찾아 실천해 보기
- 발명, 전기 · 전자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기


II. 나의 일기

제목 | 기록 날짜

III. 모둠원들의 의견


직업 정보 조사하기

•다양한 직업의 정보를 조사해 보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고객에게 나무, 뿌리, 꽃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소개하고, 알맞은 제품을 추천·판매한다.
놀이치료사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정응이나 반단상의 문제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관찰하고 평가하고 진단, 치유한다.
파티쉬	프랑스어로 '제과제빵기술자'를 말하며, 각종 재료를 배합하여 케이크, 빵 등을 디자인하고 만든다.
문화마케터	공연예술단체의 정책 및 마케팅 활성화, 기업 내부 정책 등 상품으로써의 문화를 기획하고 판매한다.
지능로봇 연구개발자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로봇 등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ㅈㅜㅇㅈㅜ.indb 22 14. 11. 24. 오후 2:14

신문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NIE 활용 방법

① 신문과 관련된 학습 내용

신문 기사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신문의 개념, 구조, 구성 요소, 유형(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과학, 국제, 환경, 해설, 논평, 칼럼, ▪르포, 인터뷰, 독자 투고, 단신)'이 있습니다. 신문의 시각적 요소에 따른 학습 내용으로는 '신문 사진, 사진 설명, 만화·▪만평·삽화, 표·그래프, 광고'를 들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문에 대한 주제적 접근, 신문의 정보 활용, 신문 만들기, 신문 읽기와 쓰기, 토의·토론 등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르포**_ 방송·신문·잡지 따위에서, 현지 보고나 보고 기사를 이르는 말.

▪ **만평**_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평함.

② NIE 활용 방법

NIE 활용 방법으로는 '탐구·탐색 활동, 공작 활동, 동작 표현 활동, '기자' 활동, 견학 활동, 읽고 쓰기 활동, 발표·토론 활동, 감상 및 평가 활동' 등이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23 14. 11. 24. 오후 2:14

4 NIE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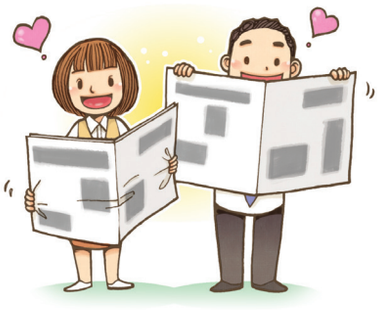
NIE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해요.

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이 신문 활용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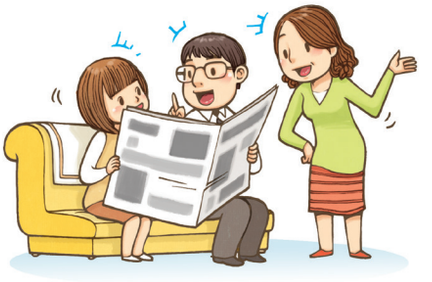
필요한 기사나 사진 자료는 어떻게 이용할지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여 스크랩합니다.

NIE 활동은 재미가 있어야 해요.

NIE는 무엇보다 재미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신문을 펼쳐 놓고 대화를 하면 자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NIE를 숙제나 과제가 아닌 스스로 즐기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24 14. 11. 24. 오후 2:14

'읽기' 와 '말하기', '쓰기'를 골고루 지도해 주세요.

신문을 읽으면서 의견을 말하고, 밑줄 긋기, 단어 찾기, 요약하기 등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읽기와 말하기, 쓰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신문 활용 교육이 이상적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자녀가 만든 스크랩북, 신문 등은 모두 최선을 다한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줍니다.

신문 이외의 자료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좋아요.

간혹 신문만으로는 내용 전달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문 이외의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NIE 활동을 했을 때 재활용 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는 체험 활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25 14. 11. 24. 오후 2:14

2

신문으로 하는 학습

1 신문으로 배우는 국어

2 신문으로 배우는 사회

3 신문으로 배우는 과학

4 신문으로 배우는 수학

5 신문으로 가꾸는 인성

6 신문으로 찾아가는 진로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신문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자녀의 학교 공부와 내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문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인성, 진로를 중심으로 각각에 알맞은 신문 활용 방법들과 자녀를 지도하는 방안, 지도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27 14. 11. 24. 오후 2:14

1

신문으로 배우는 국어

1. 신문 읽기로 어휘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2. 신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 신문 기사는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4.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신문을 활용한 토의 · 토론은 어떻게 할까요?
6. 신문으로 논술 실력은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1 신문 읽기로 어휘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어휘력은 성공적인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배경지식이 풍부해져서 학교 공부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가 실리기 때문에 자녀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신문 읽기를 통해 어떻게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독해, 어휘에 답이 있다

학생들은 문단 및 문장 관계가 복잡한 글도 어려워하지만, 무엇보다 생소한 어휘가 많은 글에 난색을 표한다. 특히 철학 및 인문학 분야의 지문과 고전 문학을 학습하는 날에는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아이들은 글 속에 담긴 철학의 심오한 뜻도, 고전 문학의 가치도 이해하지 못한다. 호혜, 선험, 귀납, 견지 등 생소한 어휘의 벽이 독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결국은 글의 중심 내용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어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찾고, 수십 번씩 써 가며 그 단어를 암기한다. 하지만 국어는 어떠한가? 생소한 어휘가 나왔다고 사전을 찾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가령 '귀납'이라는 단어는 독서 지문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어휘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귀납적 추론', '귀납적 사고방식' 등 각종 지문에서 이 어휘를 수차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간다. 이대로라면 어휘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그 장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독해 습관을 바꿔야 한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스리슬쩍 넘기며 읽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 습관이 결국 부정확한 독해, 어휘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사전을 찾거나,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단어 습득 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휘의 확장이 기존의 어휘 체계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는 방식이기에 새 어휘를 기존 체계에 존재하는 관련 어휘(유의어, 반의어 등)와 연결하여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중부일보", 2014년 4월 23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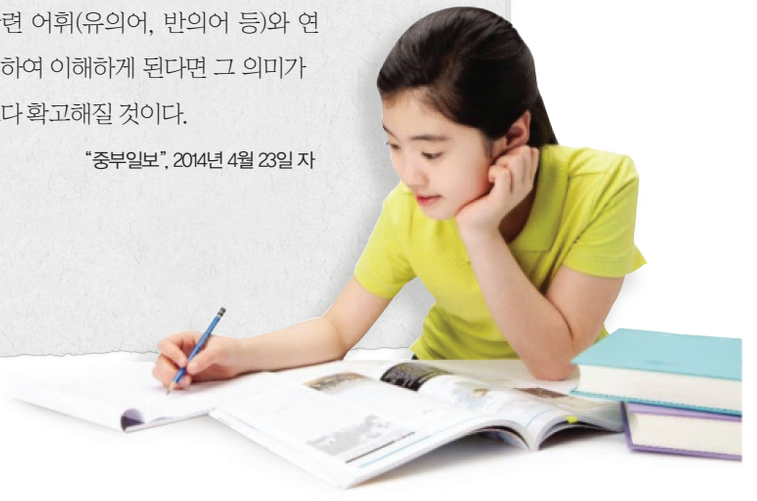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보게 해 주세요. '볼멘소리'는 문맥을 통해 '싫은 소리' 정도로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공부해야겠지요?

'귀납'은 어렵지만 많이 사용되고,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이므로 따로 알아 두면 좋겠지요?

'지문'처럼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어휘(동음이의어)나, '장벽'처럼 하나의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다의어)를 많이 익힐수록 어휘력은 향상됩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네요.
① 사전 찾기
② 알고 있는 어휘 활용하기



ㅈㅜㅇㅈㅜ.indb 29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 문맥과 사전을 활용하여 어휘력 향상하기

① 잘 모르는 단어에 표시하며 기사 읽기

뜻을 모르거나 의미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단어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며 읽습니다.

②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 추측하기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 앞뒤 문맥을 통해 단어가 어떤 뜻일지 추측해 보도록 합니다.

③ 사전을 활용하여 뜻 확인하기

종이로 된 국어사전뿐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뜻을 찾습니다.

④ 기사를 다시 읽으며 단어의 뜻 되새기기

해당 단어가 들어 있는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 보면서 머릿속으로 뜻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어휘력 향상하기

어휘의 의미 관계(반의 관계, 유의 관계, 상하 관계)를 활용하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어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면에 '매입'이라는 어휘를 공부하면서 반대말인 '매각'이나 비슷한 말인 '매수'를 함께 익히는 것입니다.

코스피, 개인 · 외국인 매수에 상승 출발	=	2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소폭 증가… 美 최대 매입	↔	도시 공사, 행복 센터 주상 복합 용지 100억 원에 매각
매수 : 물건을 사들임		**매입** : 물품 따위를 사들임		**매각** : 물건을 팔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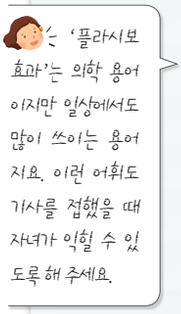
☑ 게임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어휘력 향상하기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도 재미있게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 빨리 찾기, 한자 성어 찾기, 빙고 게임, 십자말풀이, 끝말잇기' 등을 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어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자녀라면 이런 게임을 통해 신문과 어휘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0 14. 11. 24. 오후 2:15

☑ 신문으로 시사 상식 용어 익히기

신문을 읽다 보면 해당 분야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용어나 새로운 용어를 정의해 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놓치지 말고 따로 모아 정리해 둡니다. 하나둘 용어를 익히다 보면 시사 상식이 풍부해지고 지식의 폭도 확장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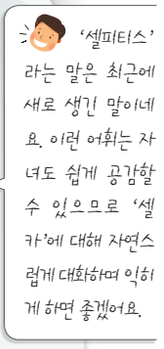


심리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것이 있다. 일명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약효가 전혀 없는 약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약 성분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몸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호르몬 작용을 도와 면역을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4년 7월 11일 자

'셀프 카메라(셀카)'를 많이 찍는 것은 일종의 정신 질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는 것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을 '셀피티스(selfitis)'라고 명명했다.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자



☑ 공부한 어휘 관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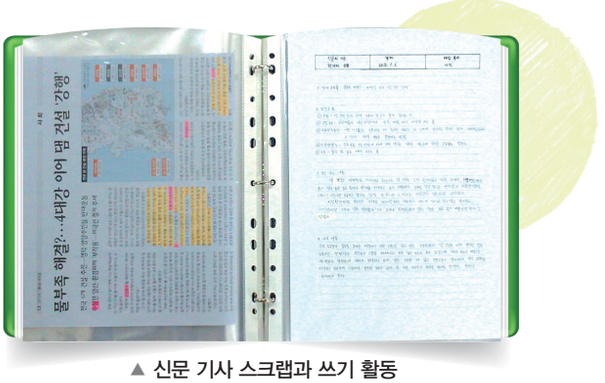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어휘는 따로 단어장을 만들거나 스크랩을 하여 관리하면 좋습니다. 보통 단어장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말 단어장도 만들어 사용하면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단어의 뜻만 적어 두기보다는 기사 요약하기나 자기 생각 쓰기와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① 단어장 만드는 방법

- 신문의 섹션별로 공책 구분하기
- 해당 섹션에 해당 단어, 뜻, 문장, 비슷한 단어 적기

② 기사를 스크랩하는 방법

- 모르는 단어가 표시된 기사를 오려 공책에 붙이기
- 단어의 뜻 적어 두기



▲ 신문 기사 스크랩과 쓰기 활동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녀들이 신문 읽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에 나오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 당연히 읽기가 싫겠지요. 어휘력은 단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확인하여 여러 상황에서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31 14. 11. 24. 오후 2:15

2 신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문에는 다양한 기사들이 담겨 있어 읽을거리가 가득합니다. 하루치 신문에는 약 700쪽 분량의 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자녀가 매일 다 읽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신문도 요령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신문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날의 중요한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의 1면을 통해 구체적인 읽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표제와 부제, 리드를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사진과 사진 설명을 통해서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기사라면 관련 기사가 있는 면으로 가서 내용을 더 살펴봅니다.

지면 안내를 통해 오늘자 신문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의 내용도 잘 살펴봅니다.

XTOXTO.indb 32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을 읽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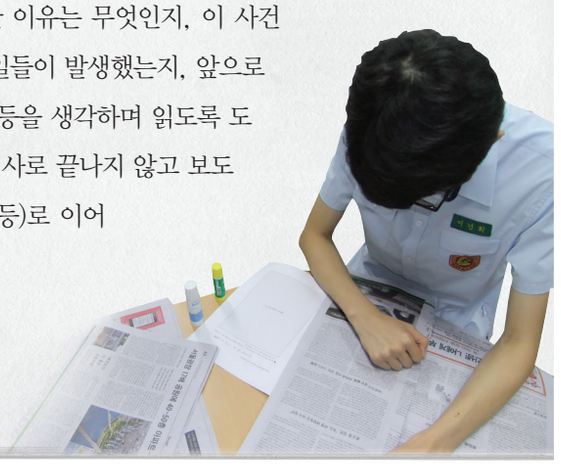
신문은 카메라의 줌 아웃과 줌 인의 기능처럼 전체 훑어 읽기와 자세히 읽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나서 관심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① 전체 훑어 읽기

신문의 지면은 종합면, 사회면, 국제면, 정치면, 문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약 52면 정도가 하루에 제공됩니다. 자녀가 신문을 읽을 때 각각의 기사들을 모두 처음부터 자세히 읽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신문을 볼 때에는 먼저 각 기사마다 제공되는 표제(기사의 큰 제목), 부제(기사의 작은 제목), 리드(본문의 맨 앞에 그 요지를 추려서 쓴 짧은 문장), 사진과 사진 설명, 그래프 등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도록 합니다. 보통 표제와 부제에는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진과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에는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어 빠르게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훑어 읽기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더 읽어야 할 기사에는 표시를 해 두어 자세히 읽기를 합니다.

② 자세히 읽기

자세히 읽기에서는 사건의 배경, 원인과 결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건에는 어떤 논리가 작용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등을 생각하며 읽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통 하나의 기사로 끝나지 않고 보도 기사, 해설 기사, 의견 기사(사설, 칼럼, 만화, 만평 등)로 이어지므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만화나 만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니, 이들을 함께 엮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녀가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해 보세요. 텔레비전 뉴스는 같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신문 기사보다 조금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난 후에 해당 기사를 다시 읽으면 뉴스를 통해 생긴 배경지식으로 기사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3 14. 11. 24. 오후 2:15

3 신문 기사는 유형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문 기사는 기사를 쓴 목적에 따라 글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사의 유형에 따라 읽기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의 읽기 방식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보도 기사와 의견 기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보도 기사 읽기

보도 기사는 보통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물론 기사에 따라 1~2개의 요소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도 기사를 읽을 때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읽으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철 부정 승차 꼭 집어낸다!"

1 코레일이 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 및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 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 운임을 누적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 각 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부정 승차 단속을 하고, 부정 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타 운영 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과 매 분기 부정 승차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 한편, 부정 승차 여부는 전철역의 게이트(자동 개집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 카드를 대면, 일반 카드는 초록색, 무임 카드는 빨간색, 할인 교통 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됨에 따라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 카드 종류 구분이 가능하다.

4 특히,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 카드 기록과 폐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 등을 조사, 부정 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 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은 관련법에 따라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5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정당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2014년 8월 7일 자

1 에서는 '누가, 왜, 무엇을, 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네요.

2 와 3 에서는 '어떻게', 즉 부정 승차를 단속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4 와 5 에서는 각각 '무엇을'과 '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가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 주면 좋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코레일은 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 및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8월 7일부터 각 전철역의 게이트를 통해 수시로 부정 승차를 단속하여 상습 부정 승차자에게 누적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34 14. 11. 24. 오후 2:15

☑ 의견 기사 읽기

의견 기사는 사설이나 칼럼 등 어떤 사건에 대한 논평이나 주장을 담아 작성합니다. 보도 기사가 정보 전달 위주의 글이라면, 의견 기사는 필자의 주장을 위주로 하는 글입니다. 의견 기사는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내세웠는지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1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새뮤얼슨은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한 바 있다. 원래 의미는 '모든 점심(재화)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필자는 '모든 점심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싶다. '공짜 점심'은 공짜로 먹는 이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점심값을 대신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2 철도 이용객 중에서도 공짜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선량한 다수의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레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열차 이용자들에 대해 집중 검표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만 모두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되었다.

3 코레일이 이처럼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정 승차의 문제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에 있다. 부정 승차가 기승을 부릴 경우 편안하고 즐거운 열차 이용이 불편해진다.

4 또한 영동선 · 태백선의 경우와 같이 승차율이 낮은 공익 노선에서 부정 승차가 만연할 경우 철도 공공 서비스는 더욱 저하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8월 2일 자

1과 2에서는 부정 승차를 하면 안 된다는 필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네요.

3과 4에서는 부정 승차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의견 기사는 필자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스스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신문 기사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철도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 부정 승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보도 기사와 의견 기사는 엮어 읽으면 좋습니다. 의견 기사는 보도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기사를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5 14. 11. 24. 오후 2:15

4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신문사의 입장과 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은 취재, 편집, 보도되는 과정에서 각 신문사와 기자, 편집자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에 따라 신문의 모든 것이 취사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모두 옳고 객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비판적으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해요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첫 단계는 기사의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 의견은 '이 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실을 의견으로, 의견을 사실로 파악하여 기사를 왜곡해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손 놓고 있을 텐가

①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09년 7월 10.7%로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 7%)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5년 후인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율 20%)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②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앞으로 3년 후인 2017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③ 그야말로 인구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④ 그런데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⑤ 정부가 2006~2013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 원, 관련 정책은 연간 96개(2013년 기준)에 달한다. 2006년 당시 2조 1000억 원(GDP의 0.24%)이던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 14조 4000억 원(GDP의 1.13%)으로 6.8배나 늘었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2013년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6년(1.12명)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효과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풀기 어렵다.

"서울경제", 2014년 7월 28일 자

①의 내용은 ②와 같이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면 더 믿을 수 있는 기사가 되겠군요.

③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기는 하지만, 통계 자료를 통한 상황 분석은 충분히 타당해 보이네요.

④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⑤를 근거로 내세웠군요. 하지만,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④에서 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저출산'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시하고 있는 점은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통한 신문의 비판적 읽기 방법입니다.

- 자녀에게 사실과 의견에 각각 다른 색깔의 펜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 사실 부분은 정보가 정확한지, 출처가 어디인지를 살펴 믿을 만한 것인지 파악하게 하고, 의견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타당한 주장인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게 합니다.
- 사실과 의견의 관계를 살펴 사실이 의견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ㅈㅜㅇㅈㅜ.indb 36 14. 11. 24. 오후 2:15

☑ 관점 비교하기

신문의 모든 것(표제, 사진, 기사의 내용, 크기, 위치 등)에는 신문사의 관점이 반영됩니다. 특히 칼럼이나 사설과 같은 의견 기사에는 글을 기고한 사람이나 신문사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점 비교하기는 표제, 사진, 사설, 칼럼, 만화, 만평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차를 확인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표제에서 주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본문을 읽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해 주세요.

"日 관음사로 이전한다는 기록 없어 불법 유출 분명… 반환할 필요 없다"

김현구 (서산문화발전연구원 이사장)

일국의 강제력으로 발생하는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으로 볼 때 약탈은 불법이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왜구가 1376년에서 1380년을 절정으로 서해 중북부 지역(서산 일대)에 침구했을 때 현지인들은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우선 도망치고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왜구들이 해안가는 물론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 마을을 불지르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사찰의 보물들을 약탈해 간, 역사적 침탈 행위(고려사)가 극심했을 당시 서산 바닷가 한 촌의 부석사가 약탈 대상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때에 약탈해 간 것으로 봐야 한다.

'침구'는 '침입하여 노략질함'의 뜻이네요.

"현재는 장물… 일단 돌려줘야 마땅 지나친 애국심이 문화재 환수 방해"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불상을 주조했고 일본 측이 그 불상을 약탈해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불상을 우리가 주조했다는 그 사실은 맞을지라도 "고려 말기에 왜구가 불상을 약탈했다."는 우리의 주장이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 당시 부석사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불상이 쓰시마로 옮겨졌다."거나 "약탈했다면 절의 본존 불상으로 귀중히 모실 리가 없지 않은가."라는 일본 측 반론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도대체 누가 수백 년 전의 일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일보", 2013년 10월 9일 자

칼럼의 필자가 어떤 사람(직업, 관심 분야)인지도 글의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관점 비교를 통한 신문의 비판적 읽기 방법입니다.

- 같은 주제(사건)를 다룬 서로 다른 신문사의 신문 1면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신문사마다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표제, 기사의 크기, 사진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기사를 쓴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나 가치관은 어떠한지, 필자가 어떤 사람인지 등을 확인해 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7 14. 11. 24. 오후 2:15

5 신문을 활용한 토의·토론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 토의와 토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분석력과 사고력을 키워 주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교환 속에서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의'는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론'은 어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하지만 이런 토의와 토론을 하려면,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문은 우리 자녀의 말거리를 만들어 주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기 전에 주제에 대해 먼저 자녀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시사 이슈 찬반 토론] 길고양이 먹이 주기 옳을까요

찬성 "모든 생명은 소중… 길고양이도 마찬가지"

캣맘들은 아무리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관대해지고 가족처럼 여기는 반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일부 식구의 반대로 길에 버리는 일이 많고 결과적으로 길고양이가 늘어나기도 한다며 고양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기로 결정한 강동구 측은 급식소를 만들면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도 쉬워져 숫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고양이 생활 반경 역시 일정 구역 내로 통제 가능한 만큼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소중한데 길고양이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는 고양이 통제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반대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개체 수만 늘린다"

서울 강북 H아파트 주민 K씨는 "고양이에게 혐오감을 갖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고양이 먹이 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동구에 접수된 길고양이 관련 민원 500여 건 중 90% 이상이 '우리 집 앞 고양이를 없애 달라'는 내용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만큼 길고양이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강동구의 결정은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강동구의 결정은 현재 서울시가 벌이는 길고양이 숫자 통제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숫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 후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계속 먹이를 주면 이런 정책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다.

"한국경제", 2013년 5월 13일 자

기사를 읽으며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찾아보도록 해 주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여러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고양이 급식소는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며, 서울시의 길고양이 숫자 통제 시책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8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1쪽 활용

☑ 신문 기사를 통해 토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① 토의와 토론 전에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논쟁점이 있는 사회, 연예, 스포츠, 게임과 관련된 기사도 좋습니다.

② 주제를 선택하면 관련 기사를 더 찾아 읽고, 토의 · 토론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주제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가

나의 주장	근거	상대의 예상 반론	대책

관련 기사 스크랩

찬성	반대
"아파트 안에서 길을 가다가 사료가 담긴 밥그릇을 본다면 부디 걷어차지 말아 주세요. 그저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길고양이들이 배가 부르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요물, 음산한 검은 고양이, 야비한 도둑고양이 같다는 편견은 버려 주세요." "영남일보", 2013년 7월 24일 자	아파트 주민 박 모(56 · 여) 씨는 "1층에 사는 한 주민이 매일 아침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고양이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이 여러 번 항의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며 "요새는 고양이들이 사람을 봐도 피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면 심지어 발톱을 세우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울산매일", 2014년 1월 3일 자

토론 후 나의 생각 정리	

③ 토의라면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말하도록 하고, 토론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말하도록 합니다.

이때 "네 생각은 어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등 자녀의 말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의와 토론이 거듭되면, 자녀의 개인적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말해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가끔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꿔 말해 보게 합니다.

④ 토의와 토론 후에는 수집했던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가정에서 하는 토의와 토론은 부모와 자녀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말싸움'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토의와 토론의 핵심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토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 끊지 않기, 완곡하게 말하기, 승패에 집착하지 않기, 토론 후에 생각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기, 높임말 쓰기' 등의 세부 규칙을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39 14. 11. 24. 오후 2:15

6 신문으로 논술 실력은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논술은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쓴 글로, 풍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방법으로 논술 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기사 자체를 논술의 제시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문이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신문 읽기는 가장 저렴한 비용의 성공 습관

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 즉 정보이다. 신문은 정보의 바다이다. 오히려 잘 정리된 보고(寶庫)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더 발전된 모습을 표현한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것은 간단한 정보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가능성까지도 얻는 것이다.

또한,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면 대학 논술 고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 고사를 치르는데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이럴 때 적극 권하는 것이 신문이다.

논술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지 않기에 잘 정리되어 있고 글을 써야 할 내용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신문 읽기를 권하는 것이다. 철학, 문학, 교양, 상식 및 시사 문제 등 대부분의 논술 고사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들을 찾아 읽다 보면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아 많은 지식을 덤으로 얻을 수 있으며 생각의 정리와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또한 언제라도 소지하고 다니며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자투리 시간의 활용에도 그만이다. 따라서 식견(識見)이 넓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갖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엄청난 독서광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도 주말이면 모아 둔 신문을 탐독했다고 한다. 성공의 꿈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특히 어릴 적부터 소중히 키워 왔던 꿈은 평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곧 우리다. 이런 점에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는 말을 남겼다. 따라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할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신문 읽기라는 생각이다.

"경남도민일보", 2014년 4월 8일 자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논술 고사에서도 다루고 있어 신문 읽기가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빌 게이츠의 예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을 소개하여 신문 읽기 습관을 들이자는 필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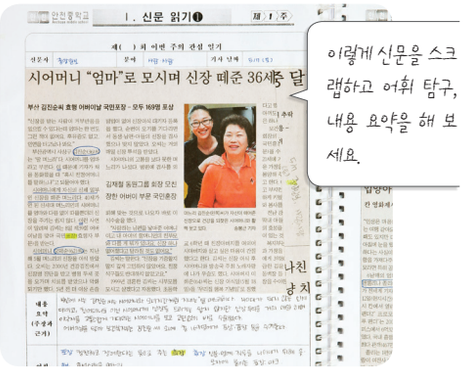
ㅈㅜㅇㅈㅜ.indb 40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 **보통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 요약하기,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비교·분석하기,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대안 제시하기' 등의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신문 일기를 꾸준히 쓰도록 하면 논술 실력을 키우는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① 기사를 읽고 스크랩하기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하여 오리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며 읽습니다. 추후에 관련 기사를 추가하여 함께 스크랩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② 어휘 탐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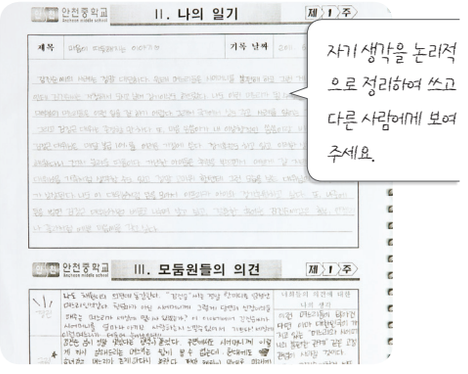
문맥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는 따로 사전을 찾아 정리해 둡니다.

③ 기사 내용 요약하기

기사를 요약할 때는 의견 기사는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보도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거나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도록 합니다. 처음 신문 일기를 시작하는 자녀라면 요약하는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점차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도록 지도합니다.

④ 기사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게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글, 분석하여 평가하는 글도 좋습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강조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을 쓰기 전이나 후에 글의 제목을 달아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⑤ 공유하기

자녀가 쓴 글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 주고 그 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게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 일기를 쓰는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기사나 사설 비교하기, 기사 내용 반박하기, 그래프 분석하기, 광고 비판하기, 인터뷰 기사 인물 평가하기, 신문에 소개된 책 읽고 서평 쓰기 등도 있습니다. 신문 일기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니 신문에 제시된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ㅈㅜㅇㅈㅜ.indb 41 14. 11. 24. 오후 2:15

2

신문으로 배우는 사회

1. 사회 교과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그래프와 지도 등의 자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3.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신문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정치와 생활의 연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6. 경제 관련 기사를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할까요?
7.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사회 교과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 교과는 신문 그 자체가 교과서라고 할 만큼 신문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 사회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회 교과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문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개발 · 보존' 상생 방향 찾아야

신문 기사를 읽고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구분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세요.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 예정지에서 청동기 시대 유구(遺構)가 대거 출토돼 개발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춘천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1만 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녀가 기사의 내용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요약하여 말하도록 하세요.

도와 춘천시는 선사 시대 유물 출토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너무 많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레고랜드 개발을 바라고 있는 춘천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중도에서 발굴된 선사 유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발에 대하여 자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하지만 고고학계는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을 중단하고 선사 유적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와 춘천시는 문화재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글로벌사업단장은 "선사 시대 유물이 발굴된 것을 놓고 도에서 보전한다, 개발한다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춘천 부시장은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선사 유적을 레고 산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학계 의견을 수렴해 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4년 8월 6일 자

자녀와 함께해요

☑ 사회 교과에 신문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실제 사회 현상과 연계할 수 있어 신문 읽기와 사회 교과에 모두 흥미를 갖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개념이나 사회 현상 등을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을 쌓고, 알아 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43 14. 11. 24. 오후 2:15

☑ 사회 교과에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① 자녀와 함께 신문의 머리기사 및 주요 기사를 읽습니다.

신문은 사회 교과의 최적의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매일 신문의 1면 머리기사 및 주요 기사를 읽으며 사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자녀가 관심이 가는 주제나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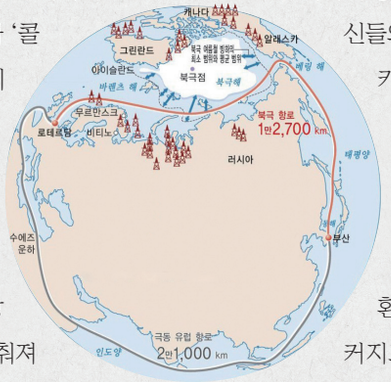
② 사회 현상과 관련된 신문 사설을 통해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문 읽기가 습관이 된 이후에는 사설을 쓴 필자의 입장에 대하여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거나 글을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③ 신문에 따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찾아 읽으면 관점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북극해 빙하 40% 이상 줄어들자 '콜드 러시(북극해 자원 확보 경쟁)'

최근 북극해에 자원 확보를 노리는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몰리며 이른바 '콜드 러시(cold rush)'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DIC)에 따르면, 북극의 빙하 면적은 410만㎢(2012년 8월 기준). 기온이 올라가면서 30여 년 전에 비해 빙하 면적이 40% 이상 줄었다. 빙하가 걷히자 그 밑에 감춰져 있던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극해 자원만큼이나 북극을 통과하는 해상 항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핀란드 포리 항까지 가는 운송 기간을 일주일 단축했다.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 대신 새 항로를 개척한 것이다. 북극 항로는 운송 기간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해적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일보", 2014년 2월 24일 자

북극곰 대신 쓰레기만 느는 북극해… 꺼져 가는 '지구의 에어컨'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가 쇄빙선을 동원해 자신들의 영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통행시키는 루트다. 얼음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쇄빙선과 아이스 파일럿 동승은 필수다. 이처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자원 개발이 늘고, 오가는 배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지구 전체 바닷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유조선 등 유해 물건을 실은 배들이 북동 항로를 통해 북극을 오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북극해의 이 같은 환경 변화로 각종 생물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신문", 2013년 10월 2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44 14. 11. 24. 오후 2:15

'북극해 빙하 40% 이상 줄어들자 '콜드 러시'' 기사는 북극 항로의 개발에 대하여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제적인 관점의 기사로 자원 개발, 운송 비용 및 시간 절약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극곰 대신 쓰레기만 느는 북극해… 꺼져 가는 '지구의 에어컨'' 기사는 북극 항로의 개발이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오염을 가속화하여, 북극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른 관점의 기사입니다. 이렇듯 특정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사를 통해 관점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교과에서 신문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① 자녀가 신문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이 자주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관심을 보일 만한 기사를 찾아 이야기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신문에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②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부터 천천히 신문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너무 욕심을 부려서 조급하게 신문 전체를 읽도록 하면 '신문은 어렵다, 재미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자녀에게 심어 줄 수 있습니다.

③ 신문마다 성향과 논조가 다릅니다. 자녀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특정 신문만을 지속적으로 읽을 경우,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미시적인 사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사건에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문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이것도 알아 두세요!

성향과 논조가 다른 2~3개의 신문에서 같은 날짜의 1면 기사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신문 읽기 및 관점 비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1면 기사의 내용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과 비중으로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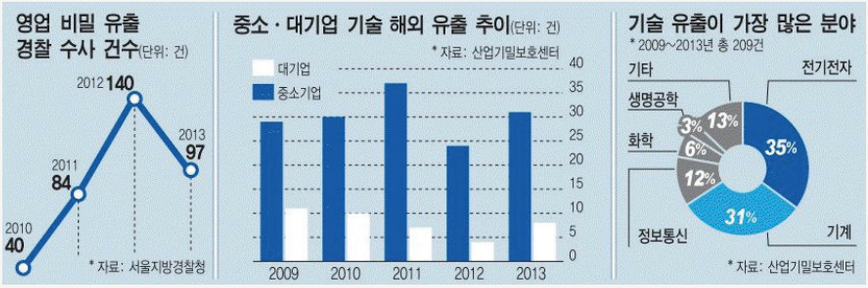
ㅈㅜㅇㅈㅜㅇ.indb 45 14. 11. 24. 오후 2:15

2 그래프와 지도 등의 자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신문 기사는 글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의 거짓말',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등의 책이 있을 정도로 각종 자료는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서도 눈을 현혹시키는 자료들의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술 유출 사각 지대

왼쪽의 꺾은선 그래프의 경우 그래프의 축이 생략되어 있네요. 세로축의 값이 0에서 시작되지 않고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여 숫자를 구체적으로 읽지 않을 경우 40은 매우 작게, 140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될 수 있겠네요.



꺾은선, 막대, 파이 그래프가 다양하게 사용된 신문 기사네요. 자녀와 함께 기사 내용을 읽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보고 기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2010년 10월 경찰이 산업 기술 유출 수사팀을 출범한 이후 전국 영업 비밀 유출 사고 수사 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140건, 지난해 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유출 사고들이다. 14일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사고의 73% 가량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대기업(19%)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건수도 대기업은 2009년 11건에서 2010년 10건, 2012년 4건, 지난해 8건으로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2009년 29건, 2010년 30건, 2012년 24건, 지난해 31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산업 기술 유출은 주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나 인사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나 처우가 열악해 인력 이동 요인이 많은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7월 14일 자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의 그래프나 지도에 제시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그래프나 지도에 제시된 값뿐만 아니라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 0.1%'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지난달 대비인지, 작년 대비인지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비해 물가가 10% 올랐음에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0.1%만 올랐다고 한다면, 물가가 안정된 것은 아니겠지요?

ㅈㅜㅇㅈㅜㅇ.indb 46 14. 11. 24. 오후 2:15

② 비율과 증가율 또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3년 12월 발표한 2011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위암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8천 952건의 발생을 보였고, 전체 암 발생 중 8.2%를 차지했으며,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13.5%로 갑상선암에 이어 2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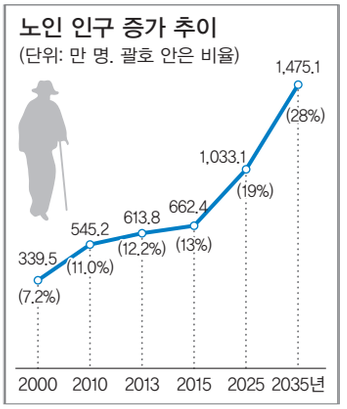
"경인일보", 2014년 8월 12일 자

2011년 암 발생자 218,017건
전립선암 8,952건 (전체 4.1%)
남성 암 5위

이 신문 기사의 내용만 살펴볼 경우 자칫 전립선암이 전체 암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2위이며,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율과 증가율에 대하여 자녀가 자칫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도표나 그래프 등을 읽을 때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이 등간격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등간격이 아닌 경우에는 꼼꼼하게 숫자를 해석하지 않으면 자녀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세로축을 생략한 그래프의 경우, 각각의 수치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래프의 모양만으로 판단하면 자칫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세로축이 생략되어 있어 등간격으로 값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의 증가율이 실제보다 약간 과장되어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④ 지도는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종이 위에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도를 접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색 지도인 경우에는 색의 사용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색이 두드러지는 경우 밀도, 빈도 등과 다르게 색이 강렬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어른도 자주 오류를 범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잦은 자료 해석 요구로 자녀가 신문 읽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ㅈㅜㅇㅈㅜ.indb 47 14. 11. 24. 오후 2:15

3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자녀들이 너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신문 읽기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업 특성 살린 '창조적 나눔'으로 함께 멀리 간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혼자 잘 해서 당장에 큰 실적을 내는 기업이 될 수는 있어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주변과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나 약자인 협력업체나 중소 상공인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련)가 "대 ·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도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로 추진되는 이른바 '한국형 동반 성장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라고 밝힌 이후 동반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또한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 동반 성장이나 상생 활동도 창조 경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 그룹의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인 '삼성 멘토링' 사업이나, LG 그룹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다문화 학교', 포스코의 빈민 지역 집짓기 프로젝트인 '포스코 빌리지 조성 사업', 효성의 낡은 도서관 개조 프로젝트인 '꿈나무 작은 도서관' 등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생 활동들이다.

현대제철의 협력 회사와의 '공동 연구 개발(R&D)' 활동, SK브로드밴드의 '협력 업체 금융 지원', CJ의 공유 가치 창출(CSV) 경영 등은 협력 회사와의 공생에 초점을 맞춘 동반 성장 모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유방암을 막기 위한 '핑크 리본 마라톤 대회', 동서식품의 '삶의 향기 동서 문학상'은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회 공헌 활동이다. 그런가 하면 건축 자재 회사인 KCC의 중소 인테리어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홈씨씨 파트너', 식품회사 대상의 '푸드 뱅크 사업', KB금융지주의 '착한 대출'은 각각의 회사 특성을 잘 살려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일보", 2014년 3월 28일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환경에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사회, 경제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 보전,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을 추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어요.

는 제시된 기사는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소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네요.

ㅈㅜㅇㅈㅜ.indb 48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세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87년 국제 연합(UN) 산하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현 세대의 성장과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초기에는 환경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사회 통합을 통해 세대 내 공평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환경 이외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속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경기도, 전국 첫 개발

경기도의 지속 가능 발전 지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6대 목표 아래 17개 전략을 수립, 이에 따른 61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도는 61개 지표 중 사회적 경제, 녹색 소비, 로컬 푸드, 소득 불균형,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등 사회 · 경제 · 환경 영역의 25개 대표적 지표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푸른 경기21 실천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속 가능 지표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 포커스 그룹 회의, 설문 조사 등을 추진했다.

"경인일보", 2014년 8월 12일 자

獨 '사회적 경제'에 일자리 해답 있다

유럽을 강타한 재정 위기 속에서 독일이 독보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체화돼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행이 대표적이다. 2008년 금융 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가 잇달아 터졌을 때 한국의 저축은행은 망했지만 독일 중앙협동조합은행의 고객 수는 급증했다. 독일 중앙협동조합은행(DZ Bank)의 이머징마켓 총괄책임자는 "영 · 미권 금융 회사가 수익성만 좇을 때 우리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3년 5월 12일 자

경기도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녹색 소비, 소득 불균형의 개선, 중앙협동조합은행 등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등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신문 기사를 통해 국 · 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자녀가 직접 찾아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지속 불가능한 발전 사례를 찾아보면서 이런 사례가 지속될 경우, 우리 생활에 나타날 문제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가정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고 실천하게 한다면 자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49 14. 11. 24. 오후 2:15

4 신문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문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정도전', 정통 사극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

'정도전'의 대부분은 정사(正史) 중심이고 역사 고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도 '정도전'을 보면서 여말선초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다.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도전'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치, 인간관계를 통렬하게 비판한다는 점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고 말한 크로체의 역사 해석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한 E·H 카, 그리고 모든 역사는 당대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의해 해석된 것으로 실체는 없다며 역사를 '시뮬라시옹'이라는 열린 텍스트로 보는 포스트모던 역사학 등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정도전'은 기본적 역사적 지식들을 알게 해 주는 효과 외에도 역사 해석과 재해석의 관점도 약간은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대업 완수라는 혁명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정몽주는 이들 두 사람과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가령, 정도전과 이성계는 전제 개혁을 지금 바로 하자고 하는 반면 정몽주는 전제 개혁의 속도를 줄여 달라고 말한다.) 두 사람과 아직은 '형제', '목숨' 같은 끈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아버지 대신 명나라로 사신을 다녀온 이방원과 정몽주, 정도전 세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르다. 아직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어떻게' 갈라서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방원이 최후 승자가 되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조선 시대에 역적이었다가 복권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를 주면서 역사가 진행돼 현재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각성을 줄지 매우 궁금하다.

▲ 정도전

"헤럴드경제", 2014년 4월 29일 자

'정도전'은 사극이 인기를 끌면, 신문 기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지요. 역사와 관련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해설 기사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 중심, 해석 중심, 재해석의 관점까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었네요.

'복권'은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의 의미예요.

자녀와 함께해요

☑ 국가적, 세계적 기념일과 기념이 되는 해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며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적, 세계적 기념일과 기념이 되는 해에는 신문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과거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자녀들이 과거 역사와 현재를 연계하여 사고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50 14. 11. 24. 오후 2:15

기념일이나 기념이 되는 해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자녀와 함께 읽고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연계하면 역사적 사실들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은 최신호에서 중동이 1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장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분쟁과 반목,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독일 ·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 세계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도 수에즈 운하 등이 위치한 중동을 자기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세계일보", 2014년 2월 5일 자

▲ 수에즈 운하

☑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소설, 영화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 기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신문 기사와 함께 드라마, 소설, 영화 등을 본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를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의 관점에 따라 역사 속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이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역사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두 가지 전투로 나뉜다. 전반부는 인간 이순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그리고 후반부는 왜선과 직접 부딪치는 해전이다. 당연히 볼거리는 화약이 터지고 칼과 살이 만나는 후반부이지만 영화의 치열함은 전반부 이순신이 자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사실 이 영화에서 만듦새, 연기력 등은 중요치 않다. 그것은 누군가의 일기를 통해 그를 들여다볼 때 이미 그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대상이 이순신이라면, 우리는 그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이미 많은 것을 '배운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다. "매일경제", 2014년 8월 13일 자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입니다. 즉, 현재의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과거 역사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신문 기사처럼 역사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현재의 관점에서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문 기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신문 기사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일부 언급이 된 경우, 그것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찾아보며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51 14. 11. 24. 오후 2:15

5 정치와 생활의 연계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법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정치, 그것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아마도 법과 정치와 관련된 신문 기사도 꼼꼼히 챙겨 읽고, 그와 관련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똑똑한 유권자가 포퓰리즘 막는다

후진국형 정치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공약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유권자의 무관심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증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면 정책보다는 조직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로 흐르게 된다. '정치 혐오 → 무당파 증가 → 돈 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세대와 계층, 이념과 종교,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이 늘어나면 그나마 제시된 공약도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치 불안과 정부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치 불안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선진화 수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후진성이 발목을 잡았다.

포퓰리즘 선거 공약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ㄴ 포퓰리즘에 대해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인 거지요.

■ 정치 선진화, 포퓰리즘 차단 우선

선심성 공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에 '페이고(pay-go.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 심사와 국무 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 여부를 평가받지만 의원 입법에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페이고 법안(국회법.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임시 국회 때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 위원회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페이고(pay-go) 원칙'의 반대론자들의 '의원의 입법권 제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의원 입법 자율성 침해가 아닌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매니페스토 등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매니페스토란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말한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20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52 14. 11. 24. 오후 2:15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2쪽 활용

☑ **자녀들이 정치와 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와 법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와 법이 무엇인지 자녀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급증하는 요즈음이다. 귀에 익은 공자님의 답을 먼저 들어 보자. 어느 날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갖추면 백성이 신뢰한다."(논어 '안연' 편)라고 짧게 답했다. 정치의 핵심을 식량 · 군사 · 신뢰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지금으로 바꿔 본다면 신뢰 · 경제 · 국방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버전으로 정치란 "억울함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라 풀이하고 싶다. 이는 공자가 말한 신뢰와도 상통한다. 사회 정의나 공평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민주주의 정신과도 잘 맞는다.

"서울신문", 2012년 9월 6일 자

정책이나 법안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중 어디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교과서와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녀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함께 찾아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며, 2학년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 **정치와 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그것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속한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신문 기사는 자녀의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학습 방법 또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후 각종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 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런 경우 현행 9등급인 영어 수능 등급 간격을 3~6등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지금보다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수능에서의 영어 변별력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만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사교육 풍선 효과'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2014년 8월 24일 자

이것도 알아 두세요!

정치와 법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다룰 때, 자녀들이 폭력적이거나 지역 대결 구도 강조, 경직된 의사 결정 등 정치의 후진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여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의 후진적인 측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주권을 회복할 때 점차 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53 14. 11. 24. 오후 2:15

6 경제 관련 기사를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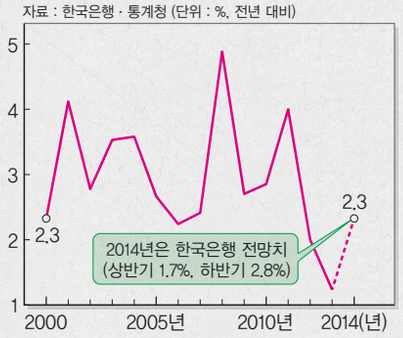
신문 기사 중에서 사회나 문화, 스포츠 등 다른 기사에 비해 경제 관련 기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녀가 잘 모르는 경제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경제 관련 기사를 자녀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바구니 물가 '들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프를 말로 풀어서 해석해 보도록 해 보세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통계청 (단위 : %, 전년 대비)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식음료 업체들이 설 연휴가 끝나자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고, 일부 공공요금은 이미 올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집세와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도 도처에 널려 있어 1년 넘게 이어지던 저물가 기조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7%에서 하반기 2.8%로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1.3%)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2013년 12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말 월 대비로 3.0% 상승하여 전년 말(1.1%)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올 연말에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은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해 하락세를 기록했던 농산물 가격의 반등과 전월세 값 오름세 등으로 공급 측면의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요금도 물가 불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공요금은 도시가스 · 상하수도 · 교통 요금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올해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상승 압력이 크다. 통계청 집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5~2009년 공공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2.8%, 2010~2013년은 1.5%였다.

"한겨레신문", 2014년 2월 11일 자

신문을 한번 읽고 난 후 사회 교과서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용어를 찾아보도록 해 주세요.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용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함께 찾아보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과 국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녀와 함께해요

☑ 자녀들이 경제 기사에 관심이 없고,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경제 관련 기사에 관심이 없고 읽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활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삶과 관련되는 생활 경제 관련 기사를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와 연계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점차 경제 기사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될 것입니다.

ㅈㅜㅇㅈㅜ.indb 54 14. 11. 24. 오후 2:16

☑ 자녀들이 경제 기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용어가 매우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에서는 경제 관련 용어의 의미나 개념을 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어 자녀들이 혼자 경제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이 경제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사회 교과서에 경제 관련 단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 배운 간단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경제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실업률 10.9%, 2000년 1월 이후 최고

지난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나타나 2000년 1월(11%) 이후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9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지난달 117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1월(89만 1000명)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8만 7000명 늘어난 것이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웃돈 것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2.7%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다시 지난달 4.5%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34만 6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60만 6000명 급감했다.

"매일경제", 2014년 3월 12일 자

☑ 자녀들은 언제 경제 관련 내용을 배우나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국내 총생산, 물가, 실업 등에 대해 배우고, 3학년 2학기에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수요, 공급과 시장 가격,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소비자와 생산자 및 정부의 경제적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 2, 3학년 자녀에게는 사회 교과서에서 언급된 경제 개념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서 함께 읽고 교과서의 경제 단원과 연계시켜 이야기를 나누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경제 신문은 없을까요? 각 신문사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 신문을 활용하거나 신문사의 경제 섹션을 활용하면 자녀 혼자서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경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55 14. 11. 24. 오후 2:16

7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문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자녀와 자연과 예술에 관심을 갖는 자녀가 각각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신문 기사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융합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어 다양한 지식을 두루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종'을 길러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너무 유행해 시시하고 진부한 단어가 됐지만 교육에도 융합이니 통섭이니 하는 잡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순종적인, 즉 학과나 전공으로 단절된 교육과 지식만으로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의 유행과 달리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융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세상이 극심하게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반세기 이상 계속 학생들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관심이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는 어린 학생 시절에 흥미에 따른 교육이 아닌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과목 선택과 교육 내용을 제한받는다. 또 대학 입시에서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문과와 이과를 뛰어넘는 전공 선택이 불가능한 입시를 강요받는다. 외국의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의 40% 이상을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대학에 입학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학과 이기주의로 모든 학과가 단절돼 있어 선택한 전공학과의 벽을 넘는 교육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 인문 · 사회적 소양과 과학적 사고 및 기술적 적응력을 융합하는 교육은 말뿐이다. 간혹 이런 융합적 지식 욕구에 목마른 학생들이 있어도 사회에 나가려면 벽에 부닥친다. 취업이나 진학 시 처음 받는 질문은 무엇에 관심과 능력이 있느냐 보다는 무슨 학과 출신, 무슨 전공인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과 사회 구조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우수한 잡종의 탄생을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다. 어떻게 시스템 하에서 창조적 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 교육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소화해 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찾는 '잡종'을 길러 낼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신문", 2014년 7월 12일 자

제목만 읽고 자녀가 기사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다양한 자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겠지요?

외국의 명문 대학들은 왜 신입생을 뽑을 때 40% 이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 뽑는지 생각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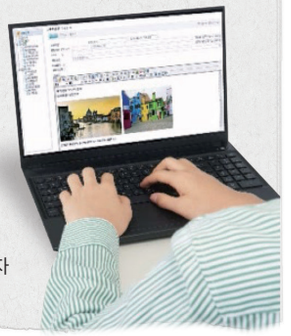
ㅈㅜㅇㅈㅜㅇ.indb 56 14. 11. 24. 오후 2:16

자녀와 함께해요

☑ 최근 융합형 인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융합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대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는 융·복합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 르네상스형 인재"라며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CEO)였던 고 스티브 잡스를 르네상스형 인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았다. 그는 지식 정보화 시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 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딩만 하는 개발자와 글만 쓰는 인문학 전공자는 성공할 수 없다."라며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춘 개발자 출신 기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4년 7월 11일 자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융합 교육, 다양성 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인재상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자녀가 자연 과학 분야를 공부한다고 해도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융합형 인재로 키우려면 어떻게 신문을 활용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문 기사라도 배경이 되는 영역이나 분야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능 지식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융합 교육은 '열린 마음'과 '학제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융합 연구 과정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배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을 읽을 때 어떤 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융합 인재의 좋은 예를 소개해 볼까요? 공학자가 불교 경전을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 어를 익히다가 컴퓨터로 주파수를 분석하여 새로운 언어학 체계를 수립했다는 내용입니다.

권 씨는 뒤늦게 불교에 심취하며 한역 불경을 읽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들을 산스크리트 어로 읽으면 어떨까 해서 이 언어를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말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과 출신으로 언어학을 공부한 적이 없던 그는 컴퓨터로 산스크리트 어와 우리말의 주파수를 분석하며 파고들다 어렴풋하던 가설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우리말과 산스크리트 어는 뿌리가 같고, 훈민정음은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라는 것이다. 그가 독학으로, 몇 달 만에 산스크리트 어를 익힐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17일 자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 기사에서 융합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스크랩해 보도록 하세요.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다양한 융합 인재를 접했을 때 자녀도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57 14. 11. 24. 오후 2:16

3

신문으로 배우는 과학

1. 신문에 나오는 과학 기술을 살펴볼까요?
2. 신문으로 과학 공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3. 매체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4. 신문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1 신문에 나오는 과학 기술을 살펴볼까요?

신문은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원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과학 기술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과학 기술 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과학 기술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과학 기술과 관련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재미난 융합 과학 이야기] (24) 초전도체

전류가 흘러도 열이 나지 않는 물체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많은 과학자가 매달려 온 연구 대상인 초전도체이다. 1911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오너스는 절대 온도 4K, 섭씨온도 −269℃라는 극저온까지 끌어내려 액체 헬륨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온도를 내린 까닭은 전류가 흐를 때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도체의 저항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도체는 일정한 간격으로 원자핵을 포함하는 (+) 이온이 놓여 있는 결정격자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이 공간에 전하를 운반하는 자유 전자가 이동해 전류가 흐른다. 만약 이온이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박혀 있다면 격자 구조가 완벽해 자유 전자가 도체 내에서 아무런 충돌도 겪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체 내에는 불순물과 결함, 이온들의 진동으로 격자 구조가 완벽하지 못해 전자가 충돌을 하게 되고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너스는 도체의 온도를 상당 수준으로 낮추면 이온들의 진동 폭이 줄어 저항이 불순물과 결함만으로 결정되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헬륨이 액체 상태가 되는 극저온에서 금속 수은의 저항을 측정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4.2K에서 저항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오너스가 발견한 수은의 초전도 현상이다. 그는 이 업적으로 1913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가 높을수록 실용화하기 좋다. 일반적으로 30K(=−243℃) 이상의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현재 많은 과학자가 이보다 높은 임계 온도의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어 에너지의 손실 없이 센 전류를 멀리 보낼 수 있다. 또 주변에 자석이 있을 때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세계일보", 2014년 5월 11일 자

이 기사에서는 초전도체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초전도체의 장점과 활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 기사는 초전도체의 역사와 원리, 장점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절대 온도, 섭씨온도, 도체와 저항, 전하와 전자, 초전도체, 자기장과 같은 용어는 자녀가 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과학 교과서 어디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59 14. 11. 24. 오후 2:16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 기사에 나오는 생활 속 과학 원리

①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자녀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과학 현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경우,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해 두면 자녀에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② 생활 속 과학에 대한 기사의 주제는 매우 다양해요.

과학 관련 기사의 주제는 자연 현상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다루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 제품, 자동차, 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다루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이 과학 관련 기사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미래 사회에서 과학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찾아보세요.

과학 기술 관련 기사에는 과학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비 오는 날 연잎을 본 적이 있다면 신기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넓은 표면을 가진 연잎 위에 물방울이 닿아도 잎이 젖지 않고 방울져 떨어진다. 연잎 표면은 비닐처럼 액체가 통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착안해 물과 기름에 젖지 않는 신소재가 탄생했다. 먼지나 더러운 물질이 표면에 묻었을 때 흘러 떨어지는 '로터스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연잎뿐만이 아니다. 듀퐁에서 개발한 나일론은 1935년 누에고치 실로 짠 비단을 모방한 섬유다. 1948년에는 엉겅퀴 씨앗이 옷감에 달라붙는 형상을 보고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벨크로 테이프(찍찍이)'를 만들었다. 인류 문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그 속에서 물리·화학 등 원리를 찾아내 실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과학이다. 자연을 따라한 과학, 바로 자연 모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자연 모사 기술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현상, 살아 있는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원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생태 모방,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닉스, 바이오그노시스 등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연 모사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만든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자신문", 2014년 1월 20일 자

자연 모사 기술에 대한 설명이네요.

의류에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ㅈㅜㅇㅈㅜㅇ.indb 60 14. 11. 24. 오후 2:16

☑ 신문 기사에 나오는 영화 속 과학 원리

① 영화에서 활용한 과학 기술 원리를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과학 기술을 다루는 영화 관련 기사들은 자녀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도 움이 됩니다.

② 공상 과학 영화는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고 있어요.

공상 과학 영화를 다룬 신문 기사에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언제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실립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본 영화나 자녀가 좋아하는 영화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서 읽어 보는 것도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인간은 영화처럼 '뇌의 10%'만 사용할까?

영화 '루시'(뤽 베송 감독)의 근간이 되는 과학적 주제가 있다.

바로 인간은 뇌의 10%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영화 속 신경학자로 출연하는 모건 프리먼은 "대부분의 인간은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면서 "만약 100%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라고 말한다. 영화 속 주인공 루시(스칼렛 요한슨 분)는 약물의 영향으로 뇌의 100%를 사용하게 돼 '초능력'을 얻게 된다.

약간의 과학적 아이템이 들어간 이 영화에는 그러나 결정적인 허구가 있다.

미첼 모피트는 "인간이 뇌의 10%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허구"라면서 "발달된 뇌 스캔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의 뇌 전체는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상 과학 영화나 소설을 통해 잘못된 믿음이 세간에 널리 퍼졌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2014년 7월 23일 자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었네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군요.

영화에서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거나 영화의 재미를 위하여 과학 원리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과학적인 오류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는 과학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녀가 과학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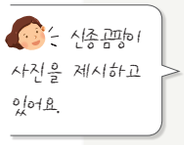
신문에서는 과학 기술 관련 기사를 사회면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별도의 섹션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자주 읽는 신문에서는 과학 기술 기사가 어떻게 실리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과학 기술 기사 읽는 날'을 정하면 좀 더 쉽게 과학 기술 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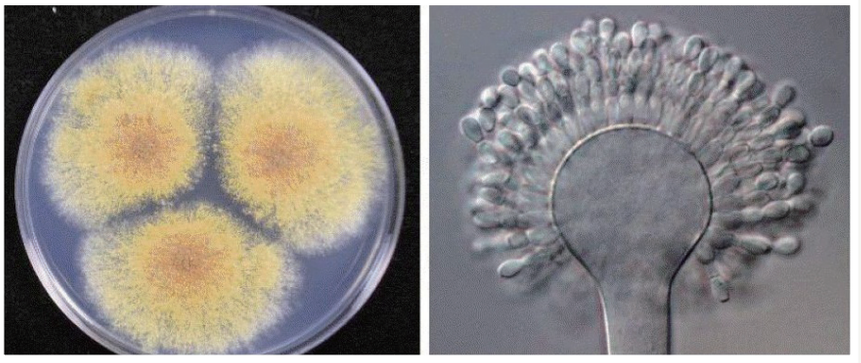
ㅈㅜㅇㅈㅜㅇ.indb 61 14. 11. 24. 오후 2:16

2 신문으로 과학 공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신문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 관련 기사는 주제와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평소에 신문에 나오는 과학 기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활용한다면 자녀의 과학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과학 지식을 보충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면 좋을지 살펴볼까요?

메주에서 신종 '우수' 곰팡이 발견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경기도 이천과 용인, 강원도 횡성 지방의 메주에서 발견한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난 신종 곰팡이. 농진청은 이 곰팡이를 '아스페르길루스 카바리우스'라고 명명했다. 사진 왼쪽은 배양된 신종 곰팡이, 오른쪽은 현미경으로 본 신종 곰팡이의 포자 머리 모습.

"경기일보", 2012년 11월 12일 자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에 나오는 다양한 과학 관련 사진을 활용하세요.

과학 기술 관련 기사에는 자녀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사진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기사의 내용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미생물의 모습이라든가, 고성능 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의 모습,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자연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도 곰팡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 주고 있지요? 물론 과학 교과서에도 좋은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차이 때문에 최신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학 교과서에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의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장면의 사진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는 현상이나 사물과 관련된 과학 기술 원리를 설명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장면의 사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진이 함께 실린 과학 기술 기사들은 별도로 스크랩해 두면 언제든지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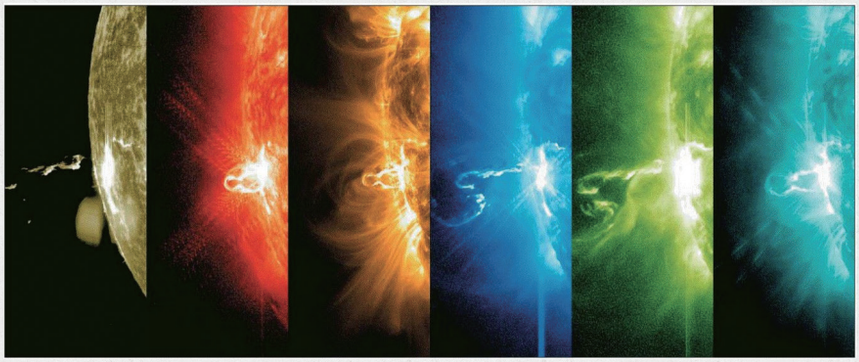
ㅈㅜㅇㅈㅜ.indb 62 14. 11. 24. 오후 2:16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단원을 찾아보세요.

신문 읽기를 통해 과학 공부를 도와주는 또 다른 방법은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과학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앞으로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울 단원 중 어떤 단원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 공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라면 '유전과 진화' 단원과 관련이 있고, 우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라면 '외권과 우주 개발'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은 '일과 에너지 전환' 단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원을 찾아보고, 그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신문 기사의 내용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 순간



국내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단파 통신에 1시간가량 장애를 일으킨 태양의 흑점 폭발 장면이 공개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6일(현지 시간) 태양 활동 관측 위성(SDO)이 촬영한 태양의 흑점 폭발 순간을 파장별로 보여 주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24일 찍힌 이 이미지는 태양의 온도 차에 따른 빛의 파장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번 폭발은 A, B, C, M, X의 5개 등급 중 가장 강력한 X 등급으로 관측됐다고 NASA는 밝혔다.

"경향신문", 2014년 2월 28일 자

사진의 색깔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천체 사진에서 보이는 색깔은 실제 촬영된 색깔이 아니라 따로 색깔을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설명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천체 사진에서 보이는 색깔이 그 천체의 실제 색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 주도록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63 14. 11. 24. 오후 2:16

3 매체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하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 기술 내용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접하는 과학 기술 내용 중 신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조상은 하나? 기존 진화론 뒤집히나

현생 인류가 지구에 공존한 여러 인류 종(種)의 후손이라는 가설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BBC 등 외신은 "조지아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인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몇몇 초기 인류 종의 대표적 특징들이 함께 나타났다."라며 "이는 지금껏 별개의 종으로 알려진 인류가 모두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한 종에 속하며 크기만 다른 개체일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인용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국립박물관과 스위스 취리히 인류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약 180㎞ 떨어진 드마니시에서 2005년 발견한 '두개골5'는 뇌 용량이 작아($546cm^3$) 150만 년 전 존재한 호모 하빌리스(뇌 용량 $500\sim800cm^3$)와 비슷했고 긴 얼굴은 호모 루돌펜시스(길고 넙적한 얼굴이 특징)와 유사했다.

기존 학설을 뒤엎는 주장에 인류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팀 화이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이제껏 많은 학자들이 인류 화석의 작은 차이에 주목해 새로운 이름을 붙이며 인류 진화의 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드마니시 유적이 그런 곁가지를 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동아프리카에서 3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루시'를 발견한 도널드 조핸슨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여러 종의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 하나로 뭉뚱그리려는 시도는 너무 성급하다."라며 면밀한 연구를 주문했다.

"한국일보", 2013년 10월 19일 자

'두개골5'의 출토 시기와 장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녀와 함께해요

☑ 과학 기술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과학 기술 기사를 읽다 보면 외국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이름, "사이언스", "네이처"와 같은 학술지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출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신문 기사를 비롯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기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64 14. 11. 24. 오후 2:16

☑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신문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 연구 방법이나 결과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증거가 부족한지를 자녀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른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제시하여 연구 방법이나 결과 해석의 부족한 부분, 또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 읽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녀도 신문에서 설명하는 연구 방법이나 결과 해석이 바른지,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한지를 생각하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 신문 기사에서 다루는 현상에 대한 다른 설명이나 반대 의견을 찾아보세요.

같은 과학 현상에 대해 과학자마다 서로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지 다양한 매체와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기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화석 연료 탓" vs "과장됐다"

CO_2 1만 4000배 증가

'지오 사이언스'라는 잡지는 IPCC의 보고서를 옹호했다.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화산 폭발이 배출의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대기 중에 발생한 증가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만 4000배 빨라졌다. 농도가 30%가량 높아졌다. 지구의 자정 능력은 매우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일어날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CO_2의 온실 효과 때문에 북극의 경우 빙하의 3분의 1가량이 녹아내려 북극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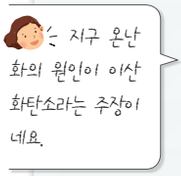
기후 전문가들은 강력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지구 온난화 후유증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구름 · 먼지가 더 변수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지구 역사에 비춰 보면 큰 변화도 아니며, 기후 분석 과정에서 환경론자들이 특정 변수를 지나치게 많이 계산에 넣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한 때문이라는 목소리다.

가령 CO_2 농도가 짙어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자들은 화석 연료에 따른 온난화 기여도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CO_2보다 구름, 수증기, 에어로솔의 양에 따른 변화가 훨씬 심하다고 이들은 반박한다. 이들은 "환경론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보다 오로지 변수에 가중치를 두고 계산해 왔다."라고 비판한다.

"한국경제", 2014년 1월 20일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내용이네요.

'에어로솔'은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를 의미해요.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 기사의 출처로 인터넷 블로그나 동영상 사이트가 제시되어 있다면 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인용된 블로그와 동영상 사이트가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ㅈㅜㅇㅈㅜ.indb 65 14. 11. 24. 오후 2:16

4 신문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요즈음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융합적 인재란 과학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성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융합형 인재가 가져야 하는 능력 중 하나가 융합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융합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과목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을 이용하여 자녀의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3쪽 활용

☑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세요.

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양하지 않고 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기 어렵습니다. 신문은 자녀의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다루는 소재는 과학, 공학, 기술,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문 읽기는 자녀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자녀가 읽은 신문 기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기사를 싣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면,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기사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를 이젠 입는다. 웨어러블 컴퓨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을 시작, 최근 활용 범위가 넓어져 옷이나 모자, 신발, 안경, 시계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닌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차세대 PC 분야 중 가장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장치와 기능을 의복 내에 통합시킨 차세대 의류인 '스마트 의류'도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이다.

"경기일보", 2014년 9월15일 자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는 내년 스마트워치 시장이 올해보다 300% 증가한 2,8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제너레이터리서치는 2015년 110억 달러(약11조 3685억 원)에서 2018년 620억 달러(64조 770억 원)로 3년 새 6배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2014년 9월 16일 자

집에 도착하기 1분 전 스마트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굳게 닫혀 있던 도어록이 자동 해제된다. 집 안에 들어와 손목에 찬 웨어러블 기기로 로봇 청소기와 세탁기를 작동시킨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에 "영화 모드"라고 외치자 주변 조명이 꺼지면서 금세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웅장한 사운드가 울려 퍼진다. 웨어러블 기기에 "잘 자."라고 말하자 실내조명과 가전제품의 작동이 알아서 멈춰 서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서울경제", 2014년 9월 6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66 14. 11. 24. 오후 2:16

☑ **하나의 기사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하나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찾아보는 것도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학문의 지식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평평할까

지금은 인공위성, 즉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 주는 증거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배 이야기입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서 안 보이게 될 때 배의 아랫부분부터 사라진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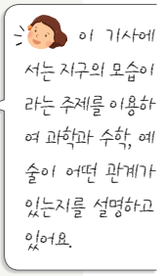
평면에서 곡면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전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평면에 도형을 그리고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수학 분야인 기하학입니다. 평면에서의 기하학을 완성한 사람이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말은 수학의 황제라고 불리는 수학자 가우스(1777 ~ 1855? · 독일)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쌍곡선기하학, 타원기하학 등의 여러 기하학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들 기하학의 공통점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섯 번째 공리인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술로 승화한 기하학의 세계

기하학의 원리는 예술 작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빈치가 만든 아나몰포시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원기둥에 반사되어 보이는 상을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독특한 미술 기법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해서 중심이 같은 원들을 여러 개 그려 놓고 몇 개의 반지름을 그린 다음 중심에 반사가 잘 되는 원기둥을 두고 비춰서 보면 여러 방향으로 퍼져 나가던 원의 반지름들이 반듯하게 평행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면 지구 위에 그려지는 도형들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한 수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2012년 5월 31일 자



여러 분야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정할 때 첨단 과학 기술 기사나 생활 속의 과학, 영화 속의 과학과 같이 신문에서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학 기술 관련 기사를 읽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회, 문화와 같은 다른 분야의 기사들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찾은 후에는 찾은 기사들의 내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67 14. 11. 24. 오후 2:16

4

신문으로 배우는 수학

1. 신문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체험해 보아요
2. 신문에서 수학 기반 융합적 사고를 찾아보아요
3.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수학적 추론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문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체험해 보아요

수학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학문의 토대를 제공하는 과목이지만 자녀에게는 재미없고, 지루한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풀이 중심의 수학에서 벗어난 스토리텔링 수학이 교육 과정에 도입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을 풀어 가는 방식으로, 신문은 생활 속 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그럼 신문 속 스토리텔링을 살펴볼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에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수학 개념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수학이 활용되고 있는 기사 내용을 통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오는 매미의 수명 주기를 통해 소수에 대해 자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매미의 수명 주기와 소수

우리나라에 흔한 참매미와 유자 매미의 수명 주기는 5년이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매미의 수명이 5, 7, 13, 17과 같이 '소수(素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를 말한다. 6은 2와 3으로도 나누어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다.

왜 매미들은 이처럼 소수를 좋아하는 걸까? 학자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긴 세월을 준비해서 매미가 돼 짝짓기 할 때까지 길어야 한 달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적에게 먹히지 말아야 한다. 천적의 수명 주기와 매미의 수명 주기가 서로소(1 이외에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정수)일 때 매미는 천적과 만나는 시점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미의 주기가 6년이고 천적의 주기가 4년이라면 매미는 12년마다 천적과 만나게 돼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매미의 수명 주기가 7년이라면 천적과 28년마다 만나게 돼 천적을 만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또 다른 해석은 여러 종의 매미들의 주기가 겹치게 되면 동시에 많은 매미가 출현하게 되므로 먹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수명 주기가 13년인 매미와 17년인 매미가 산다면 동시에 활동하는 시기는 13×17=22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된다. 두 소수는 공약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 된다.

그러나 매미의 주기가 소수가 아니라 12년과 15년이라면 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60이므로 소수일 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이처럼 매미는 생존을 위해 수명 주기가 점점 소수가 되도록 진화해 온 것이다.

"대구일보", 2014년 7월 14일 자

이 기사는 매미의 수명 주기가 소수(素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 소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한 예랍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두 소수의 최소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네요.

"소수일 때보다"를 "13년과 17년의 소수인 수명 주기일 때보다"로 고쳐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옳은지 판단하며 읽도록 해 주세요.

스토리텔링 관련 수학 기사를 스크랩한 후에 기사에 나온 주요 수학적 개념을 공책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신만의 수학 개념 사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ㅈㅜㅇㅈㅜ.indb 69 14. 11. 24. 오후 2:16

2 신문에서 수학 기반 융합적 사고를 찾아보아요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소양이 요구되면서 STEAM(스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STEAM(스팀)'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 Mathematics(수학)'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융합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융합 교육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개념이 연계되고 통합되어 그 개념이나 원리를 왜 배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학문이 결합된 융합적 사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바탕이 된 수학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페라 하우스 지붕의 비밀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새하얀 돛대를 달고 있는 범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지붕으로 유명하다. 이 지붕은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이 설계했다. 지붕들은 대단히 독특한 곡면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구면에서 잘라낸 구면 삼각형들로 설계된 것이다.

부드럽게 휘어진 조각의 모양들을 쉽게 모두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구면의 기하학적 특성이다. 이를 이용하면 복잡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계산들이 실현 가능할 만큼 충분히 단순해진다. 우촌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평면의 다각형뿐 아니라 곡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들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고, 많은 변수를 갖는 함수들을 통합하는 수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시공을 위해서 제작이 가능한 부분들로 나누고, 설계에 근접하도록 전체로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일이어서 비용도 많이 든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시행착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수학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과정들이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개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학은 우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신선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설계자에게 더해 준다.

"한국일보", 2014년 6월 16일 자

정교한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건축 설계의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은 융합적 사고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답만 구하는 수학이 아닌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을 활용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① 한 분야의 주제를 정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기사를 찾아 스크랩을 하여 정보를 얻어 보세요. ② 특정 기사를 스크랩한 뒤 기사 속에 담긴 여러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70 14. 11. 24. 오후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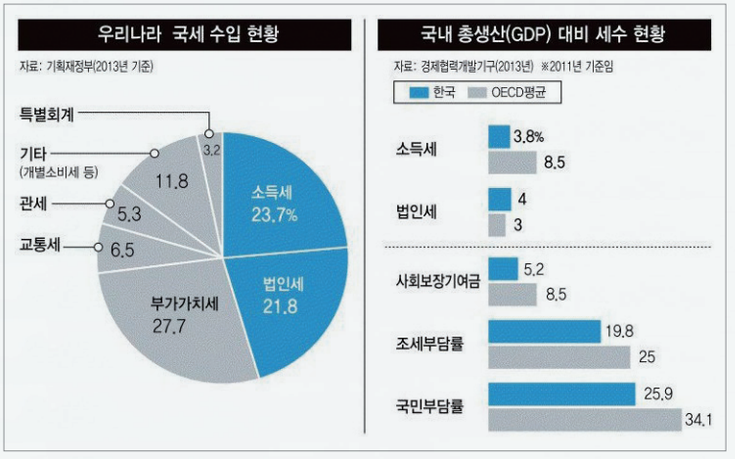
자녀와 함께해요

☑ 신문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신문은 문제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인 · 소득세 인상 왜 필요한가

14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는 255조 6000억 원(2013년 결산 기준)이고 이 가운데 국세는 201조 9000억 원(79%), 지방세는 53조 7000억 원(21%)이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23.7%), 법인세(21.8%), 부가 가치세(27.7%) 등 '3대 세목'이 73.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조세 수입을 늘리려면 세수가 큰 소득 · 법인 · 부가세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여력이 많은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여력이 적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가진 세목이라는 점에서, 복지 재원 마련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금으로 꼽힌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선진국과 견주어도 증세가 필요한 세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내 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세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4%로 오이시디(OECD) 평균(3%)보다 1% 포인트 높다. 하지만 사회 보험료(국민연금 등)에서 고용주 몫은 국내 총생산의 2.6%로 오이시디(OECD) 평균 5.2%의 절반 수준이다.

"한겨레신문", 2014년 9월 15일 자

이 기사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국세 수입과 세수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여 증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할 때 사회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수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의견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분석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71 14. 11. 24. 오후 2:16

3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문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수학적 관점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사용된 문제 해결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문 기사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지 자녀와 함께 알아볼까요?

수학 꼭 배워야 하나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여주인공 포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포샤가 제대로 된 신랑감을 고를 수 있는 묘안을 마련했다. 금, 은, 납으로 된 세 개의 상자를 준비하여 그중 하나에 그녀의 초상화를 넣었고, 포샤는 초상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고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각 상자의 뚜껑 위에는 현명한 사위를 선택하기 위한 힌트들을 새겨 놓았는데, 그것을 변형해 미국의 수학자 · 피아노 연주자 · 철학자 · 마술사인 레이먼드 스멀리언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위를 선택하기 위한 '포샤의 상자'라는 논리 퍼즐을 만들었다.

퍼즐 속 금 상자에는 '이 상자 안에는 초상화가 들어 있다', 은 상자에는 '이 상자 안에는 초상화가 들어 있지 않다', 납 상자에는 '금 상자에는 초상화가 들어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었다. 포샤는 이 문구 중 "많아야 한 개가 참"이라고 구혼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초상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고르는 것은 효율적인 '경우 나누기'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금 상자와 납 상자에 적힌 글귀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둘 중 하나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 먼저 금 상자의 문구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은 상자의 문구도 참이 되기 때문에 셋 중 하나만이 참이라는 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금 상자의 문구가 거짓이고, 그 결과 납 상자의 문구가 참이 되면서 은 상자의 문구가 거짓이 되어 은 상자에 초상화가 들어 있게 된다.

아주 간단한 퍼즐 문제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들인 효율적인 경우 나누기 능력과 추론 능력이 모두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경우 나누기를 위해서는 통찰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일 통찰력을 갖추지 못해 두 문구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각각이 참 또는 거짓인 여덟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만 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수학 문제들이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통찰하는 능력과 경우 나누기 능력, 추론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습득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효율적인 경우 나누기와 적절한 추론을 필요로 하는 실생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2014년 7월 23일 자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포샤의 상자'라는 논리 퍼즐(수학적 문제)을 만들었던 것이군요.

자녀에게 세 개의 문구의 참·거짓을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ㅈㅜㅇㅈㅜㅇ.indb 72 14. 11. 24. 오후 2:16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4쪽 활용

☑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은 수학적 지식과 사고력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도전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계적인 반복과 암기에 의한 학습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실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접할수록 자녀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향상됩니다. 신문 기사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체험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신문 기사에서 실생활 문제를 찾아 '폴리아 4단계 문제 해결 과정'을 따라 해결해 보세요.

〈폴리아 4단계 문제 해결 과정〉

- 1단계 –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2단계 – 관련된 문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3단계 –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 단계를 점검하세요.
- 4단계 – 결과와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세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도로공사는 2일 기준 고속 도로 알뜰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90.8원으로 서울 지역 평균 1,917.4원보다 126.6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고속 도로 노선별로 가장 싼 곳은 경부선의 경우 부산 방향은 안성주유소(1,779원), 서울 방향은 언양주유소(1,759원)이다. 영동선은 강릉 방향이 강릉주유소(1,794원), 인천 방향은 평창주유소(1,788원)였으며,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이 서천주유소(1,782원), 서울 방향은 함평 천지주유소(1,779원)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 2014년 9월 5일 자

왕복 거리를 알고 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해야 해요.

이때 문제 해결에 유용한 사고 전략으로 그림 그리기, 표 만들기, 문제를 단순화하기, 실제로 해 보기, 추측하고 점검하기, 거꾸로 풀기, 식 세우기, 관점을 바꾸어 보기, 규칙성 찾기, 목록 만들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우선 문장이 길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내용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수학적 근거 없이 답을 쓰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 해결의 4단계를 통해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73 14. 11. 24. 오후 2:16

4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 학습에 있어서 수학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수학의 이해를 공유하게 하는 등 자녀들의 수학적 힘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제공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어떻게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 65세 넘어…고령화 가속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고령 인구 기준인 65세를 넘어섰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3년 농림 어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는 114만 2천 가구, 농가 인구는 284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9천 가구(0.8%), 농가 인구는 6만 4천 명(2.2%) 각각 줄었다.

농가 수는 2008년 120만 가구를 밑돈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농가 인구도 2011년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5.4세로 지난해 64.4세에서 1세 올라 국제 연합(UN)의 고령 인구 기준인 65세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농가 경영주 37.7%는 70세 이상이었고 60대 29.6%, 50대 23.4% 등이었다.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전년보다 1.7% 포인트 높아진 37.3%였다. 전체 고령화율 12.2%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이다. 농가의 2인 가구 비중은 49.8%로 전체 가구의 2인 가구 비중인 25.7%를 크게 웃돈다.

영농 형태별로 보면 논벼 농가가 47만 6천 가구(41.7%)로 가장 많았고 채소·산나물이 27만 가구(23.7%)로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강식품 선호로 콩, 보리, 옥수수 등 식량작물 농가가 10만 가구로 전년보다 10.8% 늘었다.

어가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 6만 가구, 어가 인구는 14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와 3.8% 감소했다.

어가 고령화도 농가 못지않다. 어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1.9세로 전년에 비해 0.8세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32.7%, 50대 31.9%, 70세 이상 23.8% 순으로 많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7일 자

그래프를 통해서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녀에게 말이나 글로 설명하게 해 보세요.

'2015년에는 농가 인구 고령화율이 몇 %로 늘어날지 자녀에게 근거를 들어 예상해 보도록 하세요.

자녀가 수학적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ㅈㅜㅇㅈㅜ.indb 74 14. 11. 24. 오후 2:16

자녀와 함께해요

☑ **수학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이나 의견을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절히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듣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① 수학적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소통에는 일상 언어와 같은 비수학적 언어, 수학적인 용어와 기호와 같은 수학적 언어가 모두 활용될 수 있고, 비언어적 소통에는 신체적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자녀에게 생각거리를 제시해 준 뒤, 이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가 일상 언어와 같은 비수학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과 용어, 기호 등을 자녀와 함께 찾아본 뒤, 비수학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학적 용어나 기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② 수학적 의사소통에는 "듣기"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에서 찾은 생각거리에 대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도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③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녀와 함께 생각거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뒤, 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에 대해서 수학 일기나 수학 시를 써 보도록 해 주세요.

자녀가 쓴 수학 일기나 수학 시를 부모님이 읽고, 느낌을 한두 문장 정도로 써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수학 일기나 수학 시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글로 대화하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자녀는 부모님과 더 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규범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답도 중요하며, 결과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거나 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75 14. 11. 24. 오후 2:16

5 수학적 추론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적 추론은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정당화하며 수학적 명제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학적 추론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전개하는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문을 통해 어떻게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추론하여 해결하며 정당화하는지 알아볼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유추하기

유추는 "내가 알고 있던 문제와 이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미 알고 있는 해결 과정을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정사각형의 넓이도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유추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2}이기 때문에 2^2=4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는 2^3=8배가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수학 세계

도형의 길이와 넓이, 부피의 비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세수 비누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줄어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알아보자.

세수 비누를 직육면체라고 생각하자.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frac{1}{2}$씩 줄면 세수 비누의 부피는 $\frac{1}{8}$이 된다. 또 두루마리 휴지의 반지름이 $\frac{1}{2}$로 줄면 휴지의 길이를 결정하는 원의 넓이는 $\frac{1}{4}$이 되어 사용하다 보면 닳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고 느끼는 것이다. 수학에서 즐거움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한번쯤 "왜 그럴까?"라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2013년 11월 22일 자

길이가 2배 늘어나면 넓이는 4배, 부피는 8배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길이가 $\frac{1}{2}$배 줄면, 넓이는 $\frac{1}{4}$배, 부피는 $\frac{1}{8}$배로 줄어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길이와 넓이, 부피의 비를 이용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큰 수박과 작은 수박이 있을 때의 가격 비교, 피자의 크기(지름)에 따른 가격 비교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ㅈㅜㅇㅈㅜ.indb 76 14. 11. 24. 오후 2:16

☑ 귀납 추론하기

귀납 추론은 경험적인 검증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집단(집합)에서 가능한 몇몇의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사이에 있는 어떤 규칙이나 성질을 찾아서 그 규칙이나 성질이 그 집단에서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5, 9×11, 101×99와 같이 여러 가지 (홀수)×(홀수)를 계산하여 홀수끼리의 곱은 홀수라는 결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례를 찾게 되면 추측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추측을 제안해야 합니다. 귀납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사람마다 초밥을 골라 먹는 패턴이 다를까

수십 종의 초밥(스시)을 골라 먹을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순서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그럴까.

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 연구팀이 이유를 밝혀냈다. 정 교수팀은 20일 "사람마다 초밥을 골라 먹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며 "그 순서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 5월 20일 자에 발표됐고, 두 달 만에 조회 수가 8,510회에 달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148명을 두 명씩 짝지어 줬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고 싶은 초밥을 먼저 선택하고 진 사람이 다음 초밥을 가져가도록 했다. 이를 7번 되풀이한 뒤 "실험이 끝났다."며 편하게 먹도록 했다. 이후 연구진은 초밥 먹는 순서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의 40%가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었고, 35%는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나중에 먹었다. 25%는 특별한 순서 없이 먹었다. 여성의 경우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맨 먼저 먹는 경향이 45%로 강했다. 막내는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먼저 먹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은 사람은 그다음 초밥을 2번째, 3번째로 먹었다.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처음 고른 초밥의 선호도를 알게 되면 대상자 75%의 초밥 먹는 순서를 예측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20일 자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귀납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처음 고른 초밥의 선호도에 따라 그 사람의 초밥을 먹는 순서(규칙)를 75% 정도 맞힐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알아 두세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의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는 단골 유형이 유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과 수학적 개념 · 원리 · 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의 참 · 거짓을 판별하는 것, 반례를 들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술 시험에서도 추론의 과정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활동 외에도 추론 과정이 나오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 및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추론 과정을 익히도록 해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77 14. 11. 24. 오후 2:16

5

신문으로 가꾸는 인성

1. 대중문화, 어떻게 지도할까요?
2. 봉사 활동, 신문으로 생생하게 알고 실천해요
3. 신문으로 소통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4.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신문에서 배워요

1 대중문화, 어떻게 지도할까요?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대중문화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대중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대중문화를 지도해야 할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성숙한 팬 문화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빠질 수 없는 대중문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돌 스타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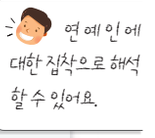
성숙한 팬 문화 스스로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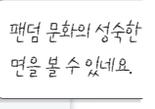
눈부신 무대를 둘러싼 뜨거운 열기, 가슴 벅찬 함성, 화려한 폭죽. 콘서트 장을 수놓는 알록달록한 풍선에 실려 팬들의 사랑이 리듬을 타고 물결친다. 요즈음은 아이돌에 흥미가 없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팬덤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연예인들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를 '팬덤'이라 지칭한다.

서로 다른 팬덤끼리 불화가 일어 다투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깊이 간섭해 흔히 사생팬이라 불리는 극성팬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생팬들은 멤버들이 있는 화장실이나 기숙사에 침입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침입하는 문제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따뜻한 선행으로 그간의 인식을 달리하는 팬덤도 보인다. 어떤 팬덤에서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에 연예인의 생일 기념으로 3천만 원 상당의 기부를 하며 사회에 모범적인 선행을 펼쳤다.

"중부매일", 2014년 8월 6일 자





☑ '집착'과 '사랑'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집착'은 혼자서 연예인의 사랑을 받으려는 삐뚤어진 소유욕, 내 우상은 잘못해도 괜찮지만 남의 우상은 무엇을 해도 나쁘다는 편견,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연예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쌀 화환, 숲 조성, 이웃돕기 등)으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자녀가 주체성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에는 주체성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대하기가 힘듭니다. 대중문화는 개인을 대중과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떼거리즘이 아닌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대중문화를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79 14. 11. 24. 오후 2:17

2 봉사 활동, 신문으로 생생하게 알고 실천해요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서로 배우는 곳이며, 같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봉사 활동은 함께 살고, 서로 배우며, 같이 성장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해 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은 현재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 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녀가 자신에게 맞는 봉사 활동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해요

☑ 자녀에게 알맞은 봉사 활동은 무엇일까요?

봉사 활동은 자녀의 나이를 살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때에는 봉사가 무엇인지, 어떤 봉사 기관이 있는지 등을 아는 데 초점을 두고 부모를 따라하는 '모방 봉사'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학생인 자녀에게는 얼굴을 맞대는 '직접 봉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면 반찬 배달하기, 양로원을 찾아 말벗을 해 드리기, 학습 지도하기,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등의 봉사 활동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라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들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 봉사 활동, 시간 때우기 인식 벗어나야

방학을 맞아 봉사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익숙했던 한 문장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봉사 활동을 채우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채워야만 하는 봉사 활동에 너무 익숙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1년 20~60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만 했고, 자유와 자발성의 상징인 대학에서조차 졸업 학점을 위한 봉사를 해 왔다. 자원봉사의 첫 번째 글자, '자(自)'는 '스스로 자'임을 수없이 교육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원치 않는 봉사 시간을 억지로 채웠던 것이다.

봉사 활동은 점수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인식 안에서 봉사의 본질과 의미는 점차 잊힌다. 남을 위한 봉사보다는 내 봉사 시간을 위한 봉사가 되기 쉽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시간을 위한 봉사 활동은 아름답지 않다. 지속될 수도 없다. 봉사 활동은 시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잘했나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누가 더 조용히 오래 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봉사 활동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주어지는 점수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간만 채우는 봉사가 아닌,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봉사 활동이 되길 바란다.

"세계일보", 2014년 8월 6일 자

'봉사 활동'이 단순한 시간 채우기에 그치는 현실이 나오네요.

봉사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활동이 되도록 봉사 활동의 가치를 알려 주세요.

ㅈㅜㅇㅈㅜ.indb 80 14. 11. 24. 오후 2:17

☑ 자녀가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길러 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 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기사에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봉사 활동 당사자가 느끼는 보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마움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봉사 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가 일손 돕기 저희에게 맡기세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상주 지역 17개 마을에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대규모 봉사 활동을 펼쳤다.

성균관대 학생 250여 명은 제초 작업, 무채종 수확 작업, 포도순 자르기, 봉지 씌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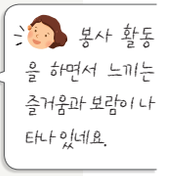
상주 시장은 "농촌 봉사 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뭄에 단비와 같이 농촌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구일보", 2014년 7월 9일 자

우리가 흘린 땀방울들이 이재민 눈물 대신했으면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 비지땀을 흘려가며 아이들이 만드는 것은 재난 대비 응급 구호품. 더운 날씨 속에 짜증이 날 법도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떠나질 않았다. 익살스럽게 춤을 춰가며 구호 상자를 만드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도마중 1학년 학생은 "덥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며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4년 7월 17일 자



봉사 활동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관심 있는 봉사 활동을 선택하여 적절한 시기, 장소나 기관, 함께할 사람 등을 확인하여 봉사 활동 계획을 짜도록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녀들은 물론 어른들도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 있는 봉사 활동을 선택하거나, 낯섦을 덜기 위해 봉사 활동 동아리에 가입하여 또래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 기사의 봉사 활동 모집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게시판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 활동을 모집하고 있어 자녀에게 맞는 봉사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이나 지역 사회 단위에서 연령에 따른 봉사 활동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81 14. 11. 24. 오후 2:17

3 신문으로 소통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또박또박 자신 있게 전달하는 능력, 맥락에 맞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대화를 시작하고 멈추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 등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신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들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가 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소통의 원리를 활용해 보세요.

① 소통의 핵심은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야 자신의 뜻도 상대편에게 잘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당사자의 상황과 감정을 찾아보면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개방에 우는 채소 재배농들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지난 16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해제면으로 가는 도로 곳곳에 '양파산성'이 늘어서 있었다. 양파 망 1400여 개를 밭과 맞닿은 갓길에 한 달째 쌓아 놓고 있는 입석마을 나태주(65) 씨는 지난해 양파 농사를 시작하면서 3000만 원을 빚졌다. 나 씨는 종자, 퇴비, 농기계, 인건비에 들어간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다른 채소류 재배 농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런 품목들은 지난해보다 30~70%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10일 고추, 마늘, 양파 재배 농민 1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농민들은 가격 폭락이 시장 개방 때문이라고 한다. 4200만 원의 빚을 내 1만여 평에서 양파 농사를 지은 뒤 겨우 1100만 원을 손에 쥐었다는 한 부부는 "농민도 계산을 못하지만 정부도 계산을 못한다. 작년에 양파값 좀 비싸다고 수입을 한다더니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6만 7000t의 양파 재고량이 소진되지 못한 것을 가격 폭락 원인으로 꼽는데, 지난해 양파 수입량이 6만 5000t이었다. 마늘 재고량도 4만 8000t으로 수입량 4만 4000t과 큰 차이가 없다. 수입량만큼 재고가 남아도는 것이다.

농민들의 마음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시장 개방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열패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 남매의 아버지인 무안의 박광순(40) 씨는 "농사를 처음 시작하던 12년 전 양파값이 지금도 비슷하다."며 허탈해했다. 박 씨는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당시 일당이 3만 원이었고, 지금은 14만 원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농산물 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했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2007~2012년 도시 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이 4387만 4000원에서 5390만 8000원으로 1000만 원 넘게 오르는 동안 농가 소득은 3196만 7000원에서 3130만 1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20일 자

ㅈㅜㅇㅈㅜ.indb 82 14. 11. 24. 오후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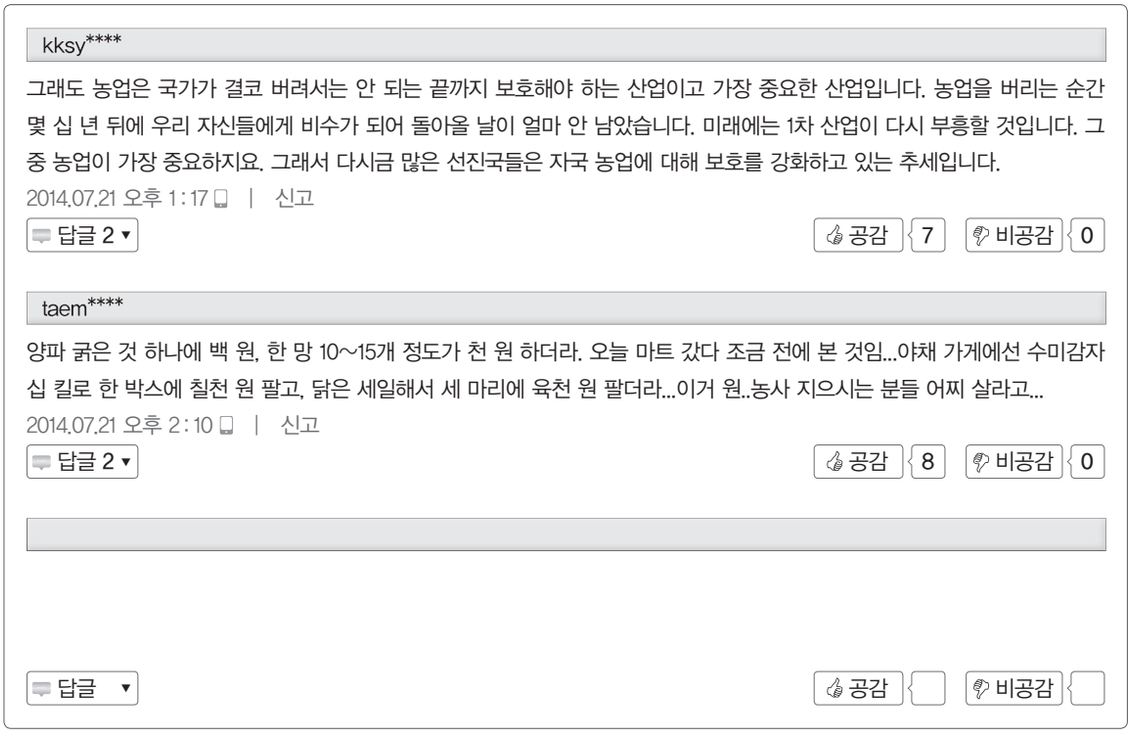
② 전달의 기술을 활용하여 소통하게 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았을 경우에는 전달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대화를 주고받아 보면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 이른바 '강한 말'은 몇 차례 반복합니다. 말을 반복하여 전하면 진심이 전달되고, 강하고 인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뇌리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신문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서 소통 능력을 길러 보도록 지도해 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사 제목 아래쪽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댓글을 활용하면 인터넷을 통한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댓글 의견에 공감 여부를 생각해 보고 공감 여부(공감 , 비공감)를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도록 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밥상머리 교육을 활용해 소통 능력을 길러 주세요. 밥상머리 교육은 명문 사대부, 케네디가(家), 유태인까지 사용했던 유용한 교육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밥상머리 교육은 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음에 주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과 장소를 강조하거나 식사 자리를 통해 뭔가를 이루겠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자녀와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숙제, 공부, 학원 얘기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서로의 일상을 얘기하고, 개방형의 질문을 통해 대화를 풍부하게 이어 나가도록 하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83 14. 11. 24. 오후 2:17

4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신문에서 배워요

예절은 사회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존중받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녀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 중에 예절을 지켜야 하고,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예절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예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5쪽 활용

☑ 어릴 때와 달리 예절 지도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예절 지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러한 매뉴얼식의 예절 지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자신만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예절을 익히거나 습관화하려면 왜 그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자녀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그 필요성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을 느끼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줍니다.

☑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에서 예절이 필요함을 알게 해 주세요.

신문에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절을 지키지 않는 부정적 상황이나 불편한 점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보면서 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켜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행동도 타당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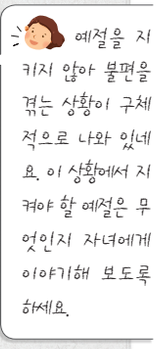
스마트폰

카톡 대신 통화 무개념 수다 눈총

1일 오후 7시께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퇴근 시간대라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동차 안 시민들이 불쾌하다는 눈치를 줬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10여 분간 계속 전화를 했고, 부산역에 이를 때쯤 문제가 발생했다. 참다못한 어르신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추라고 꾸짖었는데도 이 남성이 통화를 멈추지 않으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직장인 김 모(50) 씨도 지난달 30일 시내버스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20대 여성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줬는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계속 휴대 전화 통화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전화를 20여 분간 계속하다가 그냥 내려 버려 불쾌했다."며 "휴대 전화 통화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일이 요즈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2013년 5월 2일 자



ㅈㅜㅇㅈㅜ.indb 84 14. 11. 24. 오후 2:17

공연장

'똥머리' 하지 마세요!…뒷사람 힘들어요

공연기획팀 차 대리가 꼽는 첫 번째 공연 에티켓은 '모자를 쓰고 오지 말라'입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큰 사람이 야구 모자나 페도라를 쓰고 온다거나, 오드리 헵번처럼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와 뒷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군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똥머리를 하고 오지 말라'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여성분들 중 상투처럼 머리를 높게 치켜 올려 동그랗게 묶는, 일명 '똥머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앉은키가 최소 3㎝ 이상 높아져 뒷사람을 괴롭게 한다네요. 세 번째는 '공연 도중 먹거나 마시지 말라'입니다. 얼음이 듬뿍 담긴 음료수를 몰래 갖고 들어와 빨대로 '쭉쭉' 소리를 내며 빨아 먹거나 껌을 씹으며 '딱딱' 소리를 내는 관객들이 있는데, 말 안 해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이 밖에도 차 대리는 '옆 사람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 머리가 아프다', '신발을 벗고 있어 발 냄새가 심하다', '공연 내내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 신경이 쓰인다', '둘의 머리가 붙어 있어 시야가 가린다'는 등의 항의를 받곤 한다네요.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울 수 있으니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10일 자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관람 예절과 이유가 나타나 있네요.

실제로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습니다. 이는 공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절 지키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도서관

공공 도서관 에티켓도 모르는 사람들 반성합시다

방학을 맞아 수업료를 벌기 위해 공공 도서관에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제자리에 꽂아 두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참 많았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 일임에도 보던 책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가는 사람, 책을 빌려서 처음과 같이 반납해야 하는데도 책 내용 중간중간 줄을 많이 긋는 사람, 책 일부를 훼손시켜서 반납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껌이나 더러운 휴지를 그대로 책 속에 끼워 넣어 반납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책 반납 일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된 마음으로 도서관을 아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늦게 반납하는 일수만큼 그 책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애를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주일보", 2013년 12월 30일 자

올바르지 않은 도서관 이용 사례가 나와 있네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이유가 나타나 있네요.

신문 기사에 자녀가 잘 지켰던 예절이나 잘 지키지 못했던 예절을 직접 표시해 보면 좋습니다. 이는 자기 평가를 통해 자기 행동 개선의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85 14. 11. 24. 오후 2:17

6

신문으로 찾아가는 진로

1. 자녀의 진로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가요?
2. 자녀에게 적합한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3.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탐색해 볼까요?
4. 미래 직업인으로서 자녀의 모습을 그려 볼까요?

1 자녀의 진로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가요?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할 때, 무엇보다 자녀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자녀와 함께해요

☑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진로 목표는 "개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진로 관련 성과"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세계에서 '진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는 자녀가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에는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진로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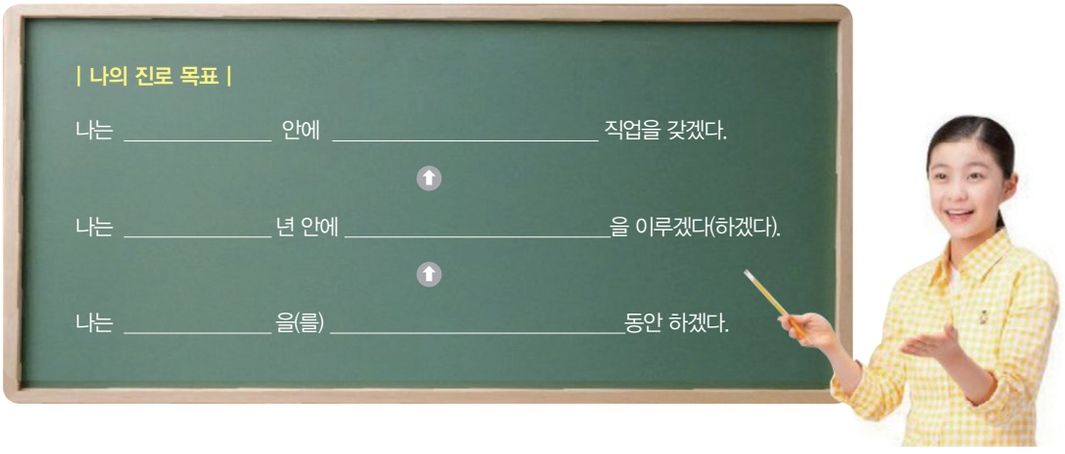
첫째, 자녀가 자신의 흥미, 장점, 가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희망하는 직업군, 직업에 대한 정보, 전반적인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생각, 자신의 희망 등에서 갈등하거나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부모님은 자녀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잠재적인 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지켜보고, 공부만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 무엇을 잘하는가를 관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가수 뒤에 매니저가 있고 운동선수 뒤에 코치가 있는 듯이 하시면 됩니다.

☑ 자녀와 함께 진로 목표를 수립하여 볼까요?

우선, 신문에 제시된 직업명, 단어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진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왜 그 목표를 세웠는지 자녀에게 물어보시고 부모님의 생각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로 목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87 14. 11. 24. 오후 2:17

2 자녀에게 적합한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입니다. 고등학교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직업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택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을까요?

"고교 선택, 적성부터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2010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가 크게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 고교로 다양화됐다. 이제는 고교 진학에 있어서도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시대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은 어떤 고교로 진학할지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다. 하지만 고입 일정에 맞춰 본인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를 선택하면 진학 후 적응을 못하는 등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특목고 교육 과정이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학·과학 인재 육성이 목표인 특목고는 기초 교과의 비중이 작고 대신 심화 영어, 고급 수학, 고급 물리 등 심화 교과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외고나 과학고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인 성적은 우수하지만 학업 의지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광역 단위 선발 자사고가 적합할 수 있다. 학업 욕심은 있지만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면 비슷한 성적을 가진 집단에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자사고 중에는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많아 향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도 이점이 있다.

일반고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고교를 선택하여 추첨하는 방식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일반고 선택 때에도 학교마다 동아리, 방과 후 활동, 특색 사업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희망하는 학교를 2~4군데 정한 후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미리 학교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2014년 8월 4일 자

자녀와 함께해요

☑ 자녀가 진학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① 자녀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은 물론 신체적 조건이나 가정 환경,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졸업 후 진로나 희망 직업과 연관 지어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③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88 14. 11. 24. 오후 2:17

☑ 자녀가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학생 자녀가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외국어 · 국제고, 과학고, 예술 ·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 대안),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타 학교(영재 학교) 등이 있습니다. 각 학교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목적	모집 단위	전형
일반고		중학교 교육 기초 위에 중등 교육 실시	지역 광역	일반 입학 전형
특목고	외국어고 국제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외국어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국제고)	광역	• 일반 입학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 • 사회 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20% 이상
	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	전국	일반 입학 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예술고 체육고	예술인 양성(예술고) 체육인 양성(체육고)	전국	일반 입학 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마이스터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전국	일반 입학 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특성화고	특성(직업)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인재 양성	광역 전국	일반 입학 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특성(대안)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광역 전국	일반 입학 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	서울 그 외	• 일반 입학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필기 고사 금지)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학교는 내신 성적을 반영한 추첨으로 학생 선발 • 사회 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20% 이상
	자율형 공립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 ·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광역	일반 입학 전형 평준화: 추첨 · 배정 비평준화: 내신 + 선발고사
기타 학교	영재 학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전국	추천 및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

〈자료: www.hischool.go.kr〉

☑ 자녀와 신문 기사에 나오는 고등학교 소개와 활동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 정보를 찾아보세요.

자녀가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진학 정보를 신문 기사에서 찾아봅니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자녀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자녀의 꿈과 진로를 고려하여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녀와 함께 신문 기사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자신에 대한 분석 결과(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등), 학교명, 선정 이유, 입학 전형 방법, 준비 방법,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적어 보도록 해 주세요. 이때 신문의 사회면 등에 제시된 학교 정보, 진학 정보를 알아보거나, 학교 알리미 사이트, 고입 정보 포털 등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ㅈㅜㅇㅈㅜ.indb 89 14. 11. 24. 오후 2:17

3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탐색해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만 2천여 종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시기와 달리 인식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일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았으며, 미래에는 또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겨날까?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에 제시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해 볼까요?

나의 미래 찾아 떠나는 진로 탐색

"여러분 보수가 많은 직장이 좋은가요? 보람이 많은 곳이 좋은가요?"

"보수요~" "보람이요~"

"그럼 권력이 있는 직업이 좋은가요, 명예가 따르는 직업이 좋은가요?"

"권력, 명예 모두 좋아요."

강사가 직업의 가치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다.

직업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직업의 가치,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할 즈음 '잡(Job) 골든벨'이 시작됐다. 흰 종이에 답이 늘어갈수록 아이들의 흥미는 더해갔다. 조를 이뤄 가산점을 주는 후반부에는 정답이 공개될 때마다 환호성과 탄성이 교차되며 열기가 고조됐다.

그런 후에 '1일 기자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신문사의 시스템, 현장 취재, 신문 제작 등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며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했다. 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인터뷰, 스케치 등 취재 활동 경험은 남다른 시간을 선사했다.

도시철도공사 차량 기지에서는 개통 10년을 맞는 지하철의 다양한 기록들을 보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를 인터뷰하며 그들의 업무와 어려운 점도 직접 알게 됐다.

대형 마트 1층에 자리한 서구청 365민원 봉사 센터에서는 '전산 장애'라는 상황이 발생,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고충을 취재하기도 했다.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가장 분주한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소중한 주권'인 투표의 중요성과 선관위의 업무 등도 파악했다.

각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직업의 세계는 물론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을 미리 경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무등일보", 2014년 5월 26일 자

신문사, 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관공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였네요. 자녀에게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해요 활동지 116쪽 활용

☑ 중학생 자녀에게 왜 직업 탐색이 중요할까요?

중학교 단계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학업 성적, 직업 전망 등의 진로 탐색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한 탐색 및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개인적 진로 의사결정과 계획에 있어 체계적인

ㅈㅜㅇㅈㅜㅇ.indb 90 14. 11. 24. 오후 2:17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개인적 · 사회적 발달과 관련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과 진로 관련 지식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시기에는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특정 능력을 준비하기보다 자신 및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 사회적 발달과 관련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함께 탐색하도록 해 보세요.

① 자녀가 알고 있는 직업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 본 후, 신문에서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찾게 합니다. 그런 후, 자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직업을 분류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각하는 기준(예: 임금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 자신이 잘 할 것 같은 직업, 잘 못할 것 같은 직업 등)에 따라 직업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 도전하고 싶은 직업 등 총 3개 정도 골라 그 직업에 맞는 성격이나 능력, 안정성(정년, 임기, 인사이동 등), 복지 수준(복지, 편의 시설 등), 수입(월급, 수당 등), 하는 일, 근무 조건(근무 시간, 근무 지역 등), 사회적 지명도(역사, 공헌도 등) 등에 대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자료를 통해 자세히 조사 및 정리해 보게 합니다.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씨를 만나러 갔을 때는 자살을 기도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와 학생들 모두 긴장했다.

"이국종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라며 보호자에게 침착하게 응대하는 선생님 모습에 따뜻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다. 선생님의 치료 덕에 살아난 중증 외상 환자가 딸들과 함께 찍어 보낸 가족사진도 봤다. 환자 쪽에서 감사하다며 보내 준 사진이었다. 선생님은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못 살렸다면 이 딸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됐을 것"이라고 하셨다. 의사로 일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생각해 봤다.

권 군과 기자단은 이렇게 책 쓰는 경험을 하며 막연히 선망하던 직업 세계 뒷면의 고단함과 어려움도 알았다. 양이린 양은 사진작가 배병우 씨를 만나면서 평소 생각했던 사진작가에 대한 편견도 덜었다.

"솔직히 사진작가라고 하면 쉬운 직업인 줄 알았다. 한데 배병우 선생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사진작가는 한 컷의 좋은 사진을 남기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걷고 여행하고 기다려야 한다. 사진 한 컷 한 컷이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걸 알았다."

"한겨레신문", 2014년 8월 12일 자

이것도 알아 두세요!

자녀에게 이전에 수행했던 심리 검사 등의 결과와 직업 정보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직업 정보 간에 차이도 깨닫게 하세요. 이를 통해 자녀가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직업을 스스로 탐구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신문에 제시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은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91 14. 11. 24. 오후 2:17

4 미래 직업인으로서 자녀의 모습을 그려 볼까요?

신문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루고 싶은 것들과 성공한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은 자녀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래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요?

만화가, 나의 보석 같은 꿈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영화보다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고 무한한 상상력이 배어 있는 만화가 멋있게 느껴졌고, 개중에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담은 것들이 인상 깊게 남아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작품을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가 않고, 어릴 때 봤지만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는 만화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해 적성 검사를 했더니 적합한 진로 방향으로 예술 계열이 나왔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능 쪽으로 눈을 돌려 진로를 찾던 중 만화가라는 직업을 탐구했고 조사할수록 적성에 맞고 흥미가 일었다.

예전부터 친구들이 나의 글이나 그림을 보고 철학적이라거나 감성적이라고 말해 주었던 칭찬들 또한 내게 큰 용기를 갖게 해 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갖고 의지를 다진다. 진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며 꿈을 향해 다가가는 모든 발자국들이 내게는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이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도 문득 떠오른 이야기를 공책에 써 내려갈 때면 밤을 새더라도 숙면을 취한 것처럼 머리가 가뿐해진다.

어떤 친구들은 내게 "그림 그리고 글 쓰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질문을 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돈을 많이 벌려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의 꿈은, 이성(異性)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고 내가 학교에 앉아서 연필 자루를 쥐고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꿈을 추구한다는 것은 잎에 맺힌 물이 식물에 생명력을 더하는 것처럼 나의 생애에 생기를 불어 주는 일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할 것이고, 한 편의 인생극장 같은 만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때 만화를 그리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대구일보", 2014년 6월 24일 자

진로 선택의 기준이 나오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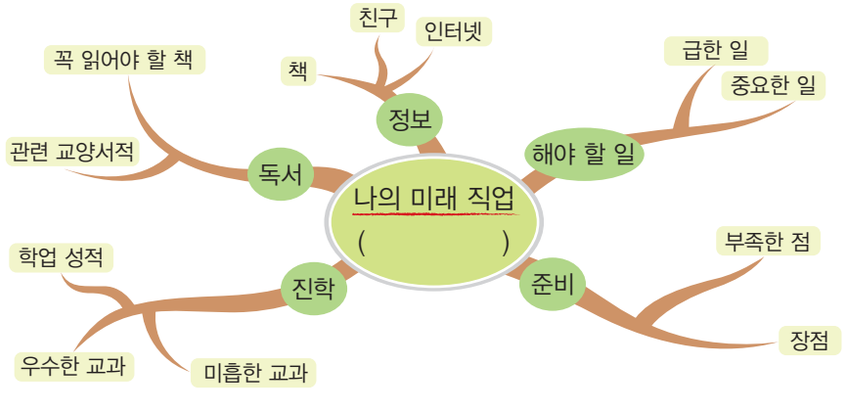
ㅈㅜㅇㅈㅜㅇ.indb 92 14. 11. 24. 오후 2:17

자녀와 함께해요

☑ 자녀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 볼까요?

① 진로 맵 그리기

자녀에게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진로를 그림으로 펼쳐 가며 자신만의 진로 계획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출발점은 미래의 자신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전에 설정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그 전개 과정을 설계도처럼 그리도록 합니다.



② 20년 후 자신의 모습 예상하기

신문에서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사진이나 기사를 찾아보고, 자신이 신문에 나왔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일로 나왔을지를 추측하여 보도 기사 형식으로 써 보게 합니다.

대한민국 첫 우주 유영에 성공하다

2034년 9월 15일 오전 3시 20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이 우주선을 나와 첫 우주 유영에 성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은 특히 지구 대기권 밖 우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항공 교통 관제사 자격증, 비행기 정비사 자격증, 비행기 조정 면허 등을 취득하였다. ○○○은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진로를 세운 중학교 때부터 어학 공부를 비롯하여 사회, 과학,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였고, 하나씩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어 많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었는데, 이번 우주 유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사에 큰 획을 장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대한민국신문", 2034년 9월 15일 자

이것도 알아 두세요!

신문에서 미래 유망 직업, 미래의 직업 세계, 직업에서 성공한 인물 등의 기사를 활용하여 진로 지도를 해 주세요. 또한 자녀가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93 14. 11. 24. 오후 2:17

3

신문 제작 프로젝트

1 신문 제작 / 준비 편

2 신문 제작 / 실행 편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신문 만들기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이해하고, 신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각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문 만들기를 통해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녀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다양한 주제의 신문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지도 방법도 알아봅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95 14. 11. 24. 오후 2:17

1

신문 제작 / 준비 편

1. 신문 만들기, 왜 해야 할까요?
2. 신문, 자녀와 함께 어떻게 만들까요?

1 신문 만들기, 왜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신문을 가정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은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신문을 읽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자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신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를 직접 써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글쓰기 연습이 됩니다. 신문의 특성상 사건이나 현상, 주장이나 의견을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사로 써야 합니다. 또한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쓰는 데 이는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의 함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해서는 기사와 관련 있는 이론과 지식을 찾아보고, 관련 분야의 인물을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이는 관련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는 과정을 배우고,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찾아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체득해 가는 경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구,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사 작성 이외에도 광고나 만화 등을 제작하고, 신문을 꾸미고 편집하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와 예술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신문 제작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출판 및 인쇄업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신문 만들기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 쓰기 능력 강화
-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함양
- 지식과 정보의 탐색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촉진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 출판 및 인쇄 산업에 대한 이해
-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력 함양
-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능력 함양

ㅈㅜㅇㅈㅜㅇ.indb 97 14. 11. 24. 오후 2:17

2 신문, 자녀와 함께 어떻게 만들까요?

신문을 직접 만든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녀와 함께 신문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신문 만들기 과정〉

1 | 신문의 주제 정하기	자녀가 만들 신문의 주제를 정합니다.
2 | 신문의 제호(제목) 정하기	신문의 제호는 간단하고 의미를 담아 정합니다.
3 | 신문의 크기, 부수 정하기	신문의 형태와 크기, 몇 부를 만들 것인지 정합니다.
4 | 신문의 구성 요소 정하기	신문에 실릴 기사와 그림, 사진, 만화, 광고, 사설 등을 정합니다.
5 | 역할 정하기	취재하기, 사진 찍기, 만화 그리기 등의 할 일을 정합니다.
6 | 자료 수집	책, 인터넷,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7 | 신문에 들어갈 원고 준비하기	기사, 사진, 그림, 만화, 광고 등의 원고를 준비합니다.
8 | 편집하기	신문의 구성 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보기 좋게 배치하여 편집합니다.
9 | 신문 발행하기	신문을 최종 편집하고 완성합니다.
10 | 신문 배포	완성한 신문을 친구, 이웃, 친척, 선생님께 보여 줍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98 14. 11. 24. 오후 2:17

이제 신문 만들기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부모님도 자녀도 즐거운 신문 만들기 활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계획하기

신문 만들기 활동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신문 제작에 앞서 자녀와 함께 신문의 주제와 제호(제목), 형식, 구성 요소 등을 정합니다.

| 신문 주제 정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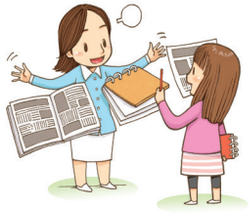
자녀 스스로 관심 분야에 맞게 신문의 주제를 정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녀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주제를 설정하면 보다 즐겁고 적극적인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환경 오염, 가정, 고조선, 독서, 우리 동네 자랑거리 등

| 신문 제호(제목) 정하기 |

제호란 신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신문의 주제와 기획 의도,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제호를 정합니다. 독자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미있고 독창적인 이름을 정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 지구 지킴이 신문, 행복한 ○○네 , 고조선 신문, ○○의 독서 창고, 꿈꾸는 미추홀 등



| 신문 형식 정하기 |

신문의 형태와 크기, 면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분량을 요구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문의 형태와 분량을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신문의 형식이나 크기가 일반적인 신문 형태에 얽매이지 않도록 신문의 다양한 형식을 안내해 주세요.

예 일반적인 신문 형식, 팝업 북 형식, 잡지나 소책자 형식, 벽보 형식 등

| 신문의 구성 요소 정하기 |

신문에 들어갈 기사와 그림, 사진, 만화, 광고 등의 구성 요소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원고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제작될 신문과 비슷한 크기의 빈 종이를 준비하여 구성 요소들을 미리 간략하게 써 보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스트잇에 구성 요소를 적은 후 신문 종이에 붙여 가며 정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99 14. 11. 24. 오후 2:17

2 자료 수집하기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신문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에 담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적이나 백과사전, 인터넷, 잡지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필요한 기사 내용과 사진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물이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 자료 조사 |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 납니다. 이 모든 자료가 신문 만들기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글이나 특정 집단의 편파적인 생각이 담긴 글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출처가 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해 주세요.

| 현장 취재 |

현장 취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취재할 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취재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미리 해 두면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필기도구, 녹음기, 카메라 등의 준비물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인터뷰 |

사전 준비 없이 인터뷰에 임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해야 할 질문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면 효과적이며, 인터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어 질문의 순서를 조금씩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여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평소에 자료를 틈틈이 모아 두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신문 만들기를 할 때 자료 조사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수집 목적과 용도에 맞게 분류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뒷면에 자신의 견해나 소감을 짧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인터뷰의 질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질문의 각도에 따라서 기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신문의 제작 과정과 요령을 충분히 익혀서 신문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세요. 보다 정확하고 알찬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100 14. 11. 24. 오후 2:17

3 기사 작성하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신문의 핵심인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와 만화 등을 제작합니다. 신문 기사의 작성 요령과 광고 및 만화 제작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 쓰기 |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는 표제, 리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는 기사의 제목을 말하고, 리드는 기사 전체의 핵심 내용을 집약해서 첫머리에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표제와 본문만큼 리드의 작성이 중요하므로 기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작성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기사의 제목인 표제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살려서 붙이도록 합니다. 기사 내용을 작성할 경우에는 가급적 육하원칙에 맞추어 쓰도록 하고, 문장은 짧고 의미는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광고 및 만화 제작하기 |

신문에 들어갈 광고나 만화는 신문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지도합니다. 신문 주제와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신문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에 맞게 표현하고 싶은 내용의 전개를 대략적으로 글로 적어 본 후, 광고나 만화로 제작하도록 하면 논점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나 만화가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편집하기

신문의 기사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신문을 보는 데에 불편함이 있다면 좋은 신문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좋은 신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신문 독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좋은 신문을 만드는 일은 편집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집하기와 발행하기의 지도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편집하기 |

기사, 사진, 광고, 만화 등을 지면에 알맞게 배치하여 편집합니다. 내용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배열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알맞게 배치합니다. 또한 독창적인 구성이 되도록 창의성을 발휘하여 편집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여러 번 배열을 바꿔 가며 가장 보기 좋은 지면 구성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 발행하기 |

편집이 완성되면 신문사에서는 인쇄를 하고 발행을 하게 되지만, 중학생 자녀가 만든 신문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쓰고, 오리고, 꾸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쇄를 하거나 다량으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나 이웃, 가족, 선생님, 친척 등과 함께 제작한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신문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101 14. 11. 24. 오후 2:17

2

신문 제작 / 실행 편

1. 신문 만들기, 어떻게 할까요?
2. 자녀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요

1 신문 만들기, 어떻게 할까요?

자녀와 함께 어떤 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종합 신문을 만들기보다는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주제가 있는 신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만들 수 있는 주제 신문에는 '가족 신문, 독서 신문, 직업 신문, 진로 신문, 환경 신문, 역사 신문, 과학 신문' 등이 있습니다. 신문의 주제를 부모님이 정하기보다 자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주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보고 관심 분야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녀의 관심 분야 찾기

자녀의 관심사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함께 읽으며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 있는 기사를 찾아 모아 보도록 합니다. 자녀가 모은 기사들을 비슷한 분야로 묶어 분류해 본다면 이것이 자녀가 신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관심 주제가 됩니다.

중학생에게 적합한 신문 제작 방법

신문 제작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다양한 신문 양식을 판매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쉽고 간단하게 신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중학생 자녀의 경우 직접 손으로 만드는 제작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1 적은 분량의 신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해요.

처음부터 많은 분량의 신문을 만드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문 만들기에 익숙해지고 관심이 커진다면 발행 면수와 발행 횟수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합니다.

2 자녀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획 단계부터 편집 단계까지 신문 만들기의 주체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문 만들기 과정을 지켜봐 주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3 신문 만들기는 결과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신문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나 화려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자녀가 최선을 다해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 주고 칭찬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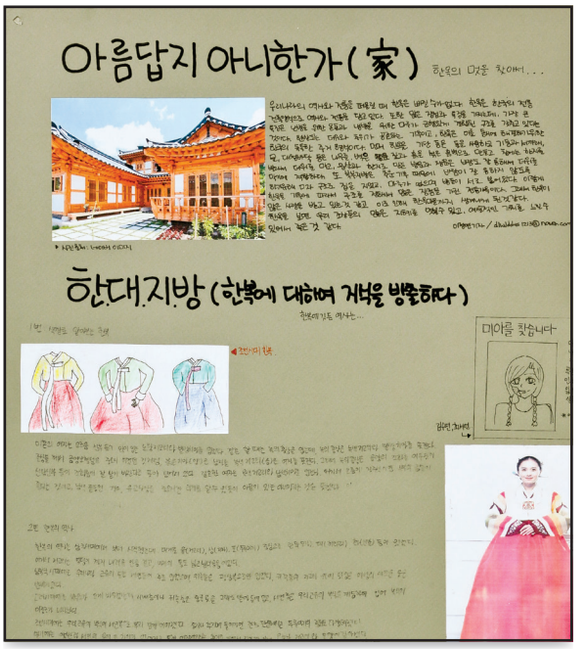
4 제작 후의 소감을 함께 나눠요.

신문 만들기 활동이 끝나면 신문 제작 과정을 돌아보고 잘 된 점, 반성할 점, 소감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전 경험을 토대로 한층 더 발전된 신문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103 14. 11. 24. 오후 2:17

중학생들이 만든 주제 신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제 신문을 자녀와 함께 만든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급 신문



이렇게 지도해요

• 신문의 분량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학급 신문의 특성상 소재와 내용을 자녀 혼자 찾고 취재해야 합니다. 처음 만드는 신문이라면 A4 용지 또는 B4 용지 앞뒤 한 장 정도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사가 사건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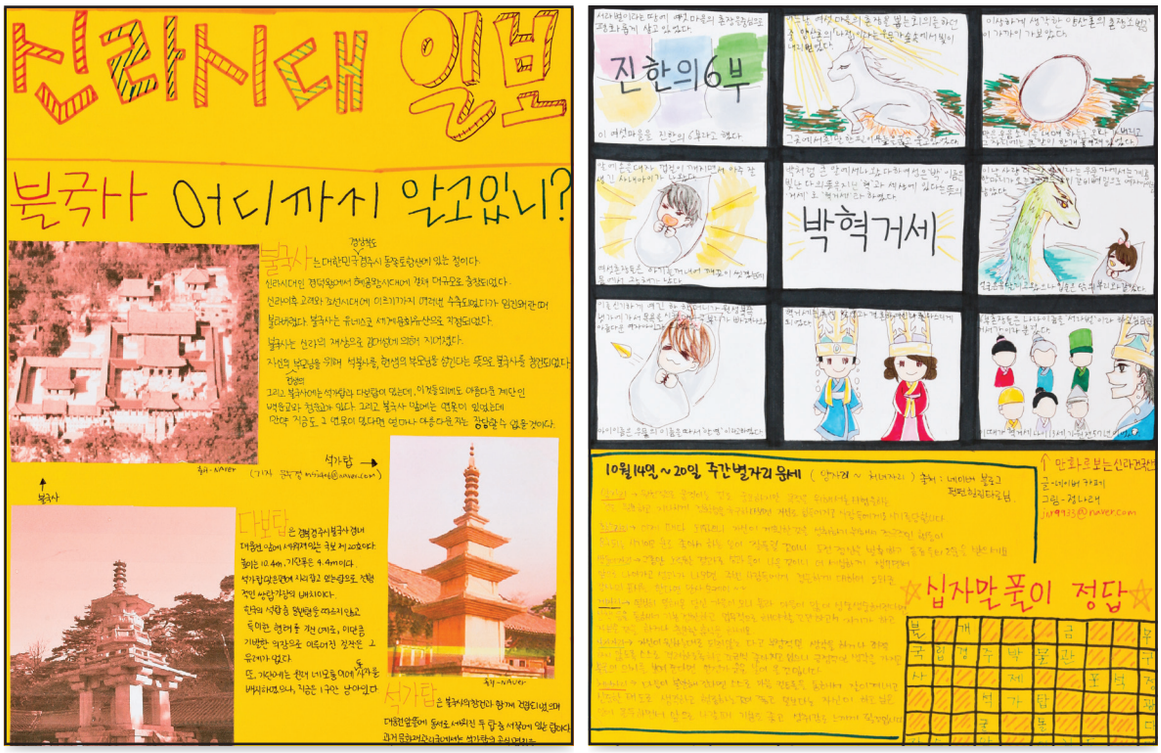
학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기사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건 중심의 기사에 치중하다 보면 지루한 신문이 되기 쉽습니다. 학급이나 학교의 행사를 소개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사하고, 학급과 관련된 퀴즈나 만화, 광고 등을 제작하는 등 여러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자료

신문 만들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학습력과 사고력 등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을 만드는 주된 주체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도와주는 관찰자와 조력자 역할을 해 주세요.

ㅈㅌㅇㅈㅌㅇ.indb 104 14. 11. 24. 오후 2:17

2 역사 신문



이렇게 지도해요

• 과거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역사 신문은 자칫하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을 찾아보고, 미래의 모습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역사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역사에 사회나 정치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기술, 문화, 예술 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의 다양한 소재를 찾아 기사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면 여러 분야를 함께 익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 구성하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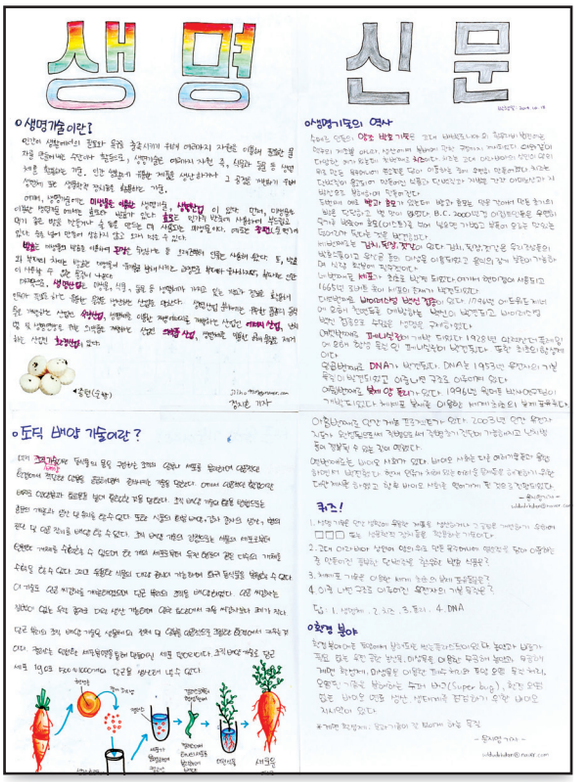
역사 신문을 만들 때에는 박물관, 유적지 등을 견학하며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역사 연표, 역사 만화, 역사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당시 발명품이나 수출품 광고하기, 유적지 탐방 등의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 구성하면 내용이 풍부한 재미있는 역사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신문사에서 만드는 전문지처럼 완벽한 신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신문 만들기 활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05 14. 11. 24. 오후 2:17

3 과학 신문



이렇게 지도해요

• 과학 이론이나 원리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과학 신문은 자칫하면 특정 이론이나 원리를 소개하는 신문이 되기 쉽습니다. 신문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론이나 원리, 현상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문화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론이나 사실,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적용과 활용을 알아봄으로써 생활 속의 과학을 탐구하게 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 어려운 용어나 이론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신문을 만들다 보면 자녀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나 이론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자녀가 모르면 신문 독자도 모릅니다. 어려운 용어와 이론을 꼭 소개해야 한다면 자녀가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언어로 재진술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면 재미있는 신문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과학 공부가 됩니다.

참고 자료

과학 신문 만들기를 통해 어려운 과학 이론이나 원리를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과학 이야기, 과학자 소개, 과학 독후감, 과학 행사 소개, 과학 퀴즈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06 14. 11. 24. 오후 2:18

2 자녀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요

이제 자녀와 함께 주제가 있는 신문을 만들어 볼까요? '지역 사회 신문'을 예로 들어 신문 만들기 활동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부모님도 자녀도 즐거운 신문 만들기 활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신문 만들기 준비하기

활동지 117쪽 활용

신문 만들기 활동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녀와 함께 신문 기획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획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문 만들기 준비를 하는 데 각각의 활동에 따른 지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문의 제호(제목)를 무엇으로 할지 토의해 보세요.

- 자녀: '행복이 가득한 마을 신문'으로 제호를 정했어요.
- 엄마: 신문의 기획자이자 제작자인 자녀의 생각과 개성이 반영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신문의 형식을 정하도록 하세요.

- 자녀: 일반 신문 형식에 8절 종이 1쪽으로 만들겠어요.
- 엄마: 자녀 스스로 기사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신문의 크기와 쪽수가 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3. 신문에 넣을 구성 요소를 정하도록 하세요.

- 자녀: '마을 행사 소식, 선행, 사설, 만화, 퀴즈, 광고' 등을 넣어 신문을 만들겠어요.
- 엄마: 신문에 담길 요소를 백지 등에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4. 필요한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보세요.

- 자녀: 먼저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 취재를 한 후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어요.
- 엄마: 자녀 혼자서 할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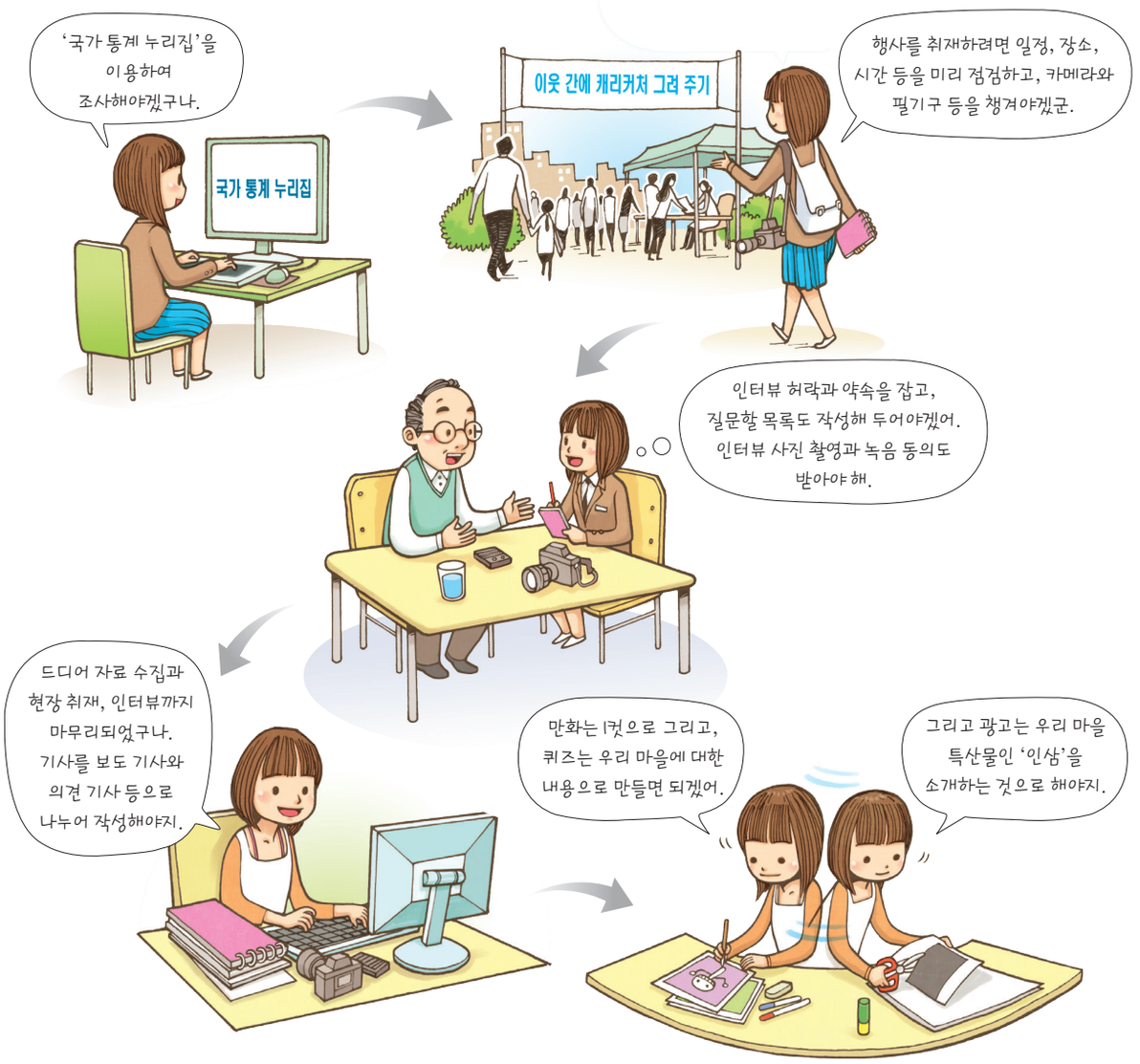
참고 자료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나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신문 만들기에 필요한 일들을 정리할 때 필요한 역할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해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07 14. 11. 24. 오후 2:18

2 신문 만들기 진행하기

지역 사회 신문에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소개한다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인구 관련 통계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그 현장을 찾아가 직접 취재할 수 있고, 지역의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가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신문의 핵심인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와 만화 등도 제작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전문가의 의견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찾아서 소개하거나, 설문 조사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개하는 방법 등도 있음을 알려 주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08 14. 11. 24. 오후 2:18

3 신문 완성하기

좋은 신문은 기사 내용도 좋아야겠지만 신문을 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기 좋은 신문을 만드는 일은 편집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작성한 기사들을 편집하여 신문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참고 자료

자녀가 만든 신문을 가족들과 함께 읽으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문을 편집하고 완성함으로써 신문 제작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문 제작 활동을 통해 자녀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정리해 보는 활동입니다. 활동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잘 된 점,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본 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또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더 알고 싶어진 사항이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필요할 경우 독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는 일도 유익한 활동이 됩니다. 부모님이 해 주실 제일 중요한 일은 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09 14. 11. 24. 오후 2:18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지

ㅈㅜㅇㅈㅜㅇ.indb 110 14. 11. 24. 오후 2:18

신문 일기 쓰기

• 교재 38, 39쪽 연계

가정에서 신문을 스크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문 일기를 써 보세요.

활동 1 관심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고, 보도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의견 기사는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스크랩	신문사		분야(섹션)		기사 날짜	
중심 내용 요약						

활동 2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써 보세요.

생각 쓰기	글의 제목		기록 날짜	

활동 3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자신의 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세요.

의견

ㅈㅜㅇㅈㅜㅇ.indb 111 14. 11. 24. 오후 2:18

정치와 법 알아보기

• 교재 52, 53쪽 연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치와 법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활동 1 정치와 법이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정치

법

활동 2 우리 가정이 속한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써 보세요.

	신문사		날짜	
신문 기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활동 3 신문 기사에 나온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ㅈㅜㅇㅈㅜㅇ.indb 112 14. 11. 24. 오후 2:18

신문으로 배우는
과학

신문으로 융합적 사고력 기르기

• 교재 66, 67쪽 연계

신문 읽기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활동을 해 보세요.

활동 1

과학 기술 관련 주제를 한 가지 정하고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주제	

첫 번째 시각

신문 기사 제목			
신문사		날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두 번째 시각

신문 기사 제목			
신문사		날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활동 2

활동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세요.

공통점

차이점

ㅈㅜㅇㅈㅜㅇ.indb 113 14. 11. 24. 오후 2:18

신문으로 배우는
수학

수학적 문제 해결력 기르기

• 교재 72, 73쪽 연계

신문에서 수학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정당화해 보세요.

활동 1 신문 기사 가운데 수학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수학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기사 내용

수학 문제 만들기

활동 2 **활동 1**에서 만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써 보세요.

활동 3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14 14. 11. 24. 오후 2:18

신문으로 가꾸는
인성

사회 속 예절을 주제로 칼럼 쓰기

• 교재 84, 85쪽 연계

신문 기사를 읽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칼럼으로 작성해 보세요.

활동 1 사회 속 예절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읽어 보고, 칼럼의 주제로 삼을 예절을 선택해 보세요.

칼럼 주제 예시

대중교통 예절	영화관 예절	휴대 전화 예절	도서관 예절	공연 관람 예절
캠핑장 예절	축제 예절	야구장 관람 예절	학교생활 예절	식당 예절

칼럼 주제	

활동 2 칼럼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개요를 작성해 보세요.

칼럼에 참고한 신문 기사 요약	칼럼 개요

활동 3 사회 속 예절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칼럼으로 작성해 보세요.

제목

내용

ㅈㅜㅇㅈㅜㅇ.indb 115 14. 11. 24. 오후 2:18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 탐색

• 교재 90, 91쪽 연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다음 활동을 통해 탐색해 보세요.

활동 1

다음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의 유형을 선택해 보세요.

능력 발휘	사회적 안정	자율성	사회봉사
보수	자기 계발	안정성	창의성

활동 2

자신이 선택한 직업 가치관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하는 일	
성격, 능력	
수입 (월급, 수당 등)	
안정성 (정년, 임기, 인사 등)	
복지 수준 (복지, 편의 시설 등)	
근무 조건 (근무 시간, 지역 등)	
사회적 지명도 (역사, 공헌도 등)	

활동 3

활동 2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ㅈㅜㅇㅈㅜㅇ.indb 116 14. 11. 24. 오후 2:18

신문 제작
실행 편

지역 사회 신문 만들기

• 교재 107~109쪽 연계

'지역 사회'를 주제로 하여 지역 사회 신문을 만들어 보세요.

활동 1

신문의 제작 목적을 고려하여 신문 제목과 형식, 구성 요소를 정해 보세요.

신문 제작 준비표

제작 목적		
제목(제호)		
형식 및 발행 방법		
구성	구성 요소 (다룰 내용 및 소재)	제작 방식 (보도 기사, 인터뷰 기사, 사진, 만화, 광고 등)

활동 2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사문을 써 보세요.

기사문 쓰기

소재		
제목		
취재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 쓰기		

ㅈㅜㅇㅈㅜㅇ.indb 117 14. 11. 24. 오후 2:18

신문 기사 · 사진 출처

- **7쪽**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 2014년 4월 14일 자
  문화일보 1면, 문화일보, 2014년 8월 18일 자
  경기일보 1면, 경기일보, 2014년 8월 18일 자
- **8쪽** '기부천사' 세종대왕 · 이순신 장군,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18일 자
  혼란만 부추기는 탄소 거래제 연기 논란, 국제신문, 2014년 7월 31일 자
- **9쪽** 스포츠스태킹은?, 소년한국일보, 2014년 3월 27일 자
  만인보, 경상일보, 2014년 7월 31일 자
  "영화도 대첩…아바타를 이겼사옵니다", 국민일보, 2014년 8월 18일 자
  그간, ₩ON없이 쓰셨나요?, 환경일보, 2014년 8월 25일 자
- **10쪽** '라이프치거 짜이퉁', 사진 http://www.wisen.de
  '독립신문'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 **11쪽**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2014년 7월 22일 자
  코리아타임스 1면, 코리아타임스, 2014년 6월 4일 자
  매일신문 1면, 매일신문, 2014년 5월 2일 자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 2014년 10월 3일 자
- **12쪽** 헬스경향, 경향신문, 2014년 7월 30일 자
  Money & Investing, 한국경제, 2014년 8월 25일 자
  함께하는 교육,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1일 자
- **13쪽** 서울경제 1면, 서울경제, 2014년 7월 29일 자
- **18쪽** "눈길끄는 기사 찾아서 일기 소재로 활용", 강원일보, 2014년 2월 4일 자
  다양한 물건 사고팔며 경제 개념 배워요, 대전일보, 2013년 10월 1일 자
  "세상 보는 눈 커졌어요", 전북일보, 2014년 8월 12일 자
- **29쪽** 독해, 어휘에 답이 있다, 중부일보, 2014년 4월 23일 자
- **31쪽** 생각의 힘, 강원도민일보, 2014년 7월 11일 자
  "'셀카' 많이 찍는 것, 일종의 정신 질환",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자
- **32쪽** 경기일보 1면, 경기일보, 2014년 8월 27일 자
- **34쪽** "전철 부정 승차 꼭 집어낸다!", 충청일보, 2014년 8월 7일 자
- **35쪽**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8월 2일 자
- **36쪽** 인구 감소 손 놓고 있을 텐가, 서울경제, 2014년 7월 28일 자
- **37쪽** 절도범이 반입한 불상, 한국일보, 2013년 10월 9일 자
- **38쪽** 길고양이 먹이 주기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3년 5월 13일 자
- **39쪽** "배고픈 길거리 고양이에 사랑을 전해요" 용돈 모아 먹이 챙겨, 영남일보, 2013년 7월 24일 자
  생활 주변 점령한 길고양이 이웃 민심도 갈라놓은 천덕꾸러기, 울산매일, 2014년 1월 3일 자
- **40쪽** 신문 읽기는 가장 저렴한 비용의 성공 습관, 경남도민일보, 2014년 4월 8일 자
- **43쪽** '개발 · 보존' 상생 방향 찾아야, 강원도민일보, 2014년 8월 6일 자
- **44쪽** 북극해 빙하 40% 이상 줄어들자 '콜드 러시', 조선일보, 2014년 2월 24일 자
  북극곰 대신 쓰레기만 느는 북극해…꺼져 가는 '지구의 에어컨', 서울신문, 2013년 10월 2일 자
- **46쪽** 기술 유출 사각 지대, 머니투데이, 2014년 7월 14일 자
- **47쪽** '연평균 증가율 2위' 전립선암 증상과 치료 방법, 경인일보, 2014년 8월 12일 자
- **48쪽** 기업 특성 살린 '창조적 나눔'으로 함께 멀리 간다, 국민일보, 2014년 3월 28일 자
  핑크 리본 마라톤 대회 사진, 핑크 리본 캠페인 아모레퍼시픽 사회 공헌 포털 (http://makeupyourlife.amorepacific.com/activity/pink/activity_pink_campaign_html.do)
- **49쪽**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경기도, 전국 첫 개발, 경인일보, 2014년 8월 12일 자
  獨, '사회적 경제'에 일자리 해답 있다, 국민일보, 2013년 5월 12일 자
- **50쪽** 드라마 '정도전', 정통 사극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 헤럴드경제, 2014년 4월 29일 자
- **51쪽** "중동 분쟁, 1차 대전 열강들 야욕의 산물", 세계일보, 2014년 2월 5일 자
  블랙뤼미에르의 영화 뒤집기 '명량'…이순신의 '心中日記'를 읽다, 매일경제, 2014년 8월 13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118 14. 11. 24. 오후 2:18

- **52쪽** 똑똑한 유권자가 포퓰리즘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20일 자
- **53쪽** 정치란 무엇인가, 서울신문, 2012년 9월 6일 자

  현재 中3부터 수능 영어 절대 평가, 세계일보, 2014년 8월 24일 자
- **54쪽** 장바구니 물가 '들썩', 한겨레신문, 2014년 2월 11일 자
- **55쪽** 청년 실업률 10.9%, 2000년 1월 이후 최고, 매일경제, 2014년 3월 12일 자
- **56쪽** '잡종'을 길러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2014년 7월 12일 자
- **57쪽** '과학 기술+인문학적 소양' 융합형 창의 인재 길러야, 서울경제, 2014년 7월 11일 자

  며칠 만에 산스크리트 어를 익힌다?, 경향신문, 2014년 7월 17일 자
- **59쪽** [재미난 융합 과학 이야기](24)초전도체, 세계일보, 2014년 5월 11일 자

  자기 부상 열차 사진,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15일 자
- **60쪽** 연잎도 물총새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전자신문, 2014년 1월 20일 자
- **61쪽** 정말 인간은 영화처럼 '뇌의 10%'만 사용할까?, 서울신문, 2014년 7월 23일 자
- **62쪽** 메주에서 신종 '우수' 곰팡이 발견, 경기일보, 2012년 11월 12일 자
- **63쪽** 태양 흑점 폭발 순간, 경향신문, 2014년 2월 28일 자
- **64쪽** 인류의 조상은 하나? 기존 진화론 뒤집히나, 한국일보, 2013년 10월 19일 자
- **65쪽** 지구 온난화…"화석 연료 탓" vs "과장됐다", 한국경제, 2014년 1월 20일 자
- **66쪽** 손목 위의 전쟁, 경기일보, 2014년 9월 15일 자

  IT업계 새 먹거리 "손목을 점령하라", 이데일리, 2014년 9월 16일 자

  갤럭시 기어 사진, 한국경제, 2014년 9월 18일 자

  갤럭시 기어에 "안녕 잘 자"하면 조명 꺼지고 가전 제품도 STOP, 서울경제, 2014년 9월 6일 자
- **67쪽**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평평할까, 국제신문, 2012년 5월 31일 자
- **69쪽** 매미의 수명 주기와 소수, 대구일보, 2014년 7월 14일 자
- **70쪽** 오페라 하우스 지붕의 비밀, 한국일보, 2014년 6월 16일 자
- **71쪽** 법인 · 소득세 인상 왜 필요한가, 한겨레신문, 2014년 9월 15일 자
- **72쪽** 수학 꼭 배워야 하나, 한국일보, 2014년 7월 23일 자
- **73쪽** 추석 앞둔 고속 도로 알뜰 주유소 휘발유값, 서울보다 ℓ당 120원 저렴, 아시아투데이, 2014년 9월 5일 자
- **74쪽**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 65세 넘어…고령화 가속, 연합뉴스, 2014년 4월 17일 자
- **76쪽** 재미난 수학 세계, 한국경제, 2013년 11월22일 자
- **77쪽** [왜?]사람마다 초밥을 골라 먹는 패턴이 다를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20일 자
- **79쪽** 성숙한 팬 문화 스스로 만들어요, 중부매일, 2014년 8월 6일 자
- **80쪽** 청소년 봉사 활동, 시간 때우기 인식 벗어나야, 세계일보, 2014년 8월 6일 자
- **81쪽** 농가 일손 돕기 저희에게 맡기세요, 대구일보, 2014년 7월 9일 자

  우리가 흘린 땀방울들이 이재민 눈물 대신했으면, 대전일보, 2014년 7월 17일 자
- **82쪽** 시장 개방에 우는 채소 재배농들,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20일 자
- **84쪽** 카톡 대신 통화 무개념 수다 눈총, 국제신문, 2013년 5월 2일 자
- **85쪽** '똥머리' 하지 마세요!…뒷사람 힘들어요,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10일 자

  공공 도서관 에티켓도 모르는 사람들 반성합시다, 광주일보, 2013년 12월 30일 자
- **88쪽** "고교 선택, 적성부터 고려해야", 이데일리, 2014년 8월 4일 자
- **90쪽** 나의 미래 찾아 떠나는 진로 탐색, 무등일보, 2014년 5월 26일 자
- **91쪽** "화려한 직업 세계 뒤엔 고단함이 배어 있어요", 한겨레신문, 2014년 8월 12일 자
- **92쪽** 만화가, 나의 보석 같은 꿈, 대구일보, 2014년 6월 24일 자

ㅈㅜㅇㅈㅜㅇ.indb 119 14. 11. 24. 오후 2:18

| 저자 소개 |

● 연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지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권동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남상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방정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양일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건남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경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숙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집필

유동현 양주 가납초등학교 교사
최지은 서울 안천중학교 교사
이지원 서울 중앙고등학교 교사
김은애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최인영 대전 진잠초등학교 교사
장진희 안성 비룡초등학교 교사
곽유림 인천 동방중학교 교사
황동국 진안 오천초등학교 교사
이태석 울산 남부초등학교 교사

● 검토

김현경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최종윤 의정부 가능초등학교 교사

초판 발행 | 2014년 11월 30일
발 행 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발 행 인 | 김병호
편 집 인 | 김동철
기 획 | 미디어교육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 (02)2001-7861~5 **전송** | (02)2001-7780
지 은 이 | 최지연, 권동택, 남상준, 방정숙, 양일호, 이건남, 이경화, 이상봉, 최숙기, 유동현, 최지은, 이지원, 김은애, 최인영, 장진희, 곽유림, 황동국, 이태석

개발·디자인·인쇄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비상교육
공급 업무 대행 | (주)비상교육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전화** | 1544-0554 **전송** | (02)6970-6114

Copyright. 이 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도 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포털 홈페이지(www.forme.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ㅈㅜㅇㅈㅜㅇ.indb 120 14. 11. 24. 오후 2:18